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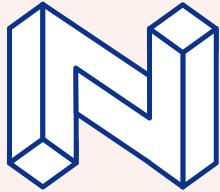


Talking Point  
인성 교육

송형호 선생님 교사 컨설턴트, 전 중등 영어 교사

Mirae N

혁신  
수업



Vol. 18 | 2023 | 여름호 | 종고등



왼쪽 QR코드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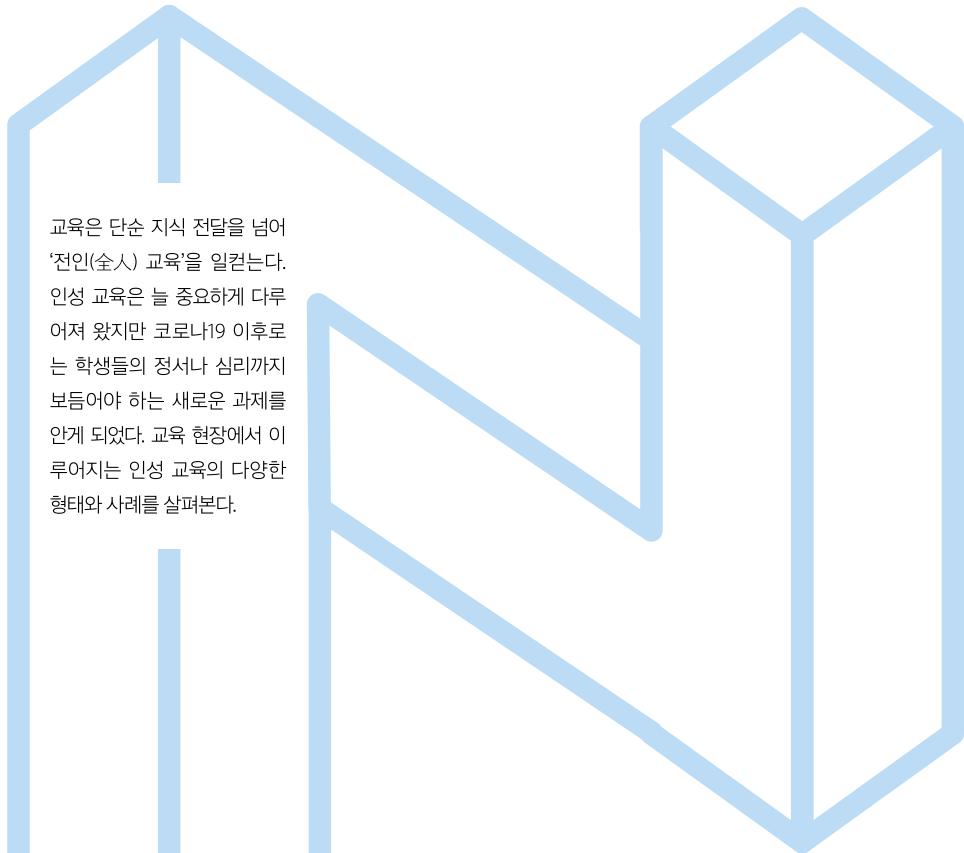
[엠티처의 혁신수업N 웹진 바로보기](#)에 들어오세요.



다양한 교육 정보와 수업 사례를 언제든지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TALKING POINT

# 인성 교육



04 PEOPLE

돌봄과 치유로 성장하는  
인성 교육 이야기  
\_ 송형호 선생님

10 COLUMN

유의미한 활동과 사건·사고에서 배우는  
학교에서의 인성 교육 방안  
\_ 전재학 선생님

22 특집\_ 중점학교

인성 교육 중점학교  
대구 물원중학교

40 수업 사례 01

인성 교육은  
'미더덕(Me the 德)'이다  
\_ 박현정 선생님

52 수업 사례 02

모두의 빛으로  
마음을 채우는 미술 수업  
\_ 김연수 선생님

30 특집\_ 생활 지도

슬기로운  
학교생활 지도를 위하여!  
\_ 김태훈 선생님

74 학급경영

특색 활동 (1)  
자습 시간을 활용한 루틴 활동  
\_ 최선경 선생님



COVER PEOPLE

송형호 선생님  
(교사 컨설턴트, 전 중등 영어 교사)  
송형호 선생님이 『혁신수업N』의  
표지 인물로 선정된 배경과 교사  
로서의 철학 등 자세한 이야기는  
4쪽 'PEOPLE'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84** 에듀테크

챗GPT in School  
교육을 위한 AI 탐구 생활 (1)  
\_조재범 선생님

**92** 자유학기제

학생 성장 기록지를 활용한  
교과 학습 피드백  
\_황유진 선생님

**102** REVIEW\_교과서

미래엔 중학교 국어 교과서 활용기  
교과서와 엠티처의 시너지 효과  
\_김미영 선생님

미래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활용기  
시대를 따라가는 국어 수업  
\_김현우 선생님

**110** 추천 도서

이 책을 소개합니다

**112** NOW MIRAE-N**122** 독자 후기**123** NOTICE

# 돌봄과 치유로 성장하는 인성 교육 이야기

송형호 선생님(교사 컨설턴트, 전 중등 영어 교사)

송형호 선생님은 수업 방법 개선과 돌봄·치유를 위한 교육 정보를 나누는 학습 공동체 ‘돌봄치유교실’ 카페를 운영하며 인성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5년간 교사로서 아이들을 만나며 얻은 통찰을 멘토링으로 나누고 있는 선생님을 만나 인성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돌봄 #치유 #인성

## 주요 약력

- 교사 컨설턴트, 35년 경력의 전직 중등 영어 교사
- 2010년 교사들의 네트워크 ‘돌봄치유교실’ 만들어 교육 노하우 공유
- 유튜브 ‘송형호’ 운영하며 교육 강사, 학부모 컨설턴트 활동
- 학교 폭력 근절 공로로 대통령 표창 수상, (전)서울 시교육청 생활교육 정책자문관
- 저서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학급경영 B to Z』, 『교사 119』, 『학부모 상담 119』 등
- 번역서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교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낯선 행동 솔루션 50』 등



## 오랜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최근에는 어떤 일들을 하며 지내시나요?

명예퇴직을 하면서 그동안의 교직 노하우를 정리해서 책도 쓰고 연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나름 계획대로 살고 있어요. 지난 5년 동안 교육 관련 도서 네 권을 출간했고,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선생님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들으며, 또 가족과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니, 새벽마다 조깅을 합니다. 그랬더니 퇴임하고 나서 오히려 더 건강해 보인다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해 주십니다.

## ‘돌봄과 치유’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카페 이름을 ‘돌봄치유교실’이라고 했더니 어떤 분께서 ‘교사가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되지, 왜 아이들을 돌보고 치유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돌봄과 치유’는 제가 아이들의 고민을 읽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찾게 된 키워드입니다. 교직에 있을 때 학급 운영 방식도 바꿔 보고, 수업 방법도 개선해서 재미있게 구성도 해 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 봤지만 여전히 까칠한 아이들, 자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뭘까 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살펴보기 시작했죠.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인터넷 중독, 우울증,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한 반에 예닐곱 명 정도 있더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잔소리로 혼내듯이 훈육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말이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그 뒤로 ‘돌봄, 치유, 성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 교사 컨설턴트로 활발히 활동하게 된 계기도 말씀해 주세요.

2010년쯤에 제가 신규 교사 연수에서 선생님들의 교직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5점 만점에 1.7점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강당에 있던 선생님들 사이에서 탄식이 나왔어요. 그러다 이내 표정이 밝아지더군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구나.’하고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연수가 끝나고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게 됐어요. 혼직 교사뿐 아니라 예비 교사 때부터 멘토링을 해야 이분들이 좌절을 하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교사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카페에 수업 운영, 학급 운영, 생활 교육

정보들을 공유했어요. 그 선생님들이 본격 교직 생활을 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저에게 연락 주시면 답변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오지랖 넓게 멘토링을 하다 보니 자칭 타칭 교사 컨설턴트가 되었네요.

## 교단에서 인성 교육을 실천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고민일텐데, 인성 교육을 하다 보면 잔소리로 흘러가게 돼요. 특히 조·종례 시간에 “이거 해라, 저건 하지 말아라.” 말이 많아집니다.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말이 긴 걸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뭔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을까 하고 고민 했습니다. 궁리 끝에 생각해 낸 것이 신문이에요. 종례 때 전달해야 할 사항들도 많은데, 이걸 신문으로 만들자고 정하고 의견을 모아 ‘종례 신문’이라고 이름도 지었습니다. 종례 신문에 거창한 이야기를 담지 않아요. 꼭 전달해야 할 정보와 함께 ‘우리 반 아무개가 태권도 승단에 성공했다. 아무개가 자격증에 도전한다. 격려해 주자.’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죠. 종례 신문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 정도 되면 집에 와서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을 잘 꺼내지 않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종례 신문’을 보면서 아이들과 대화거리를 찾고 이를 통해 학교 생활을 더 이해하면서 자녀와의 사이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성 교육이 아이들에게 잘 스며들려면 재미있어야 하고, 감동적이어야 하며, 정보가 충실해야 해요. 그중 재미있는 인성 교육으로 소개할 만한 사례는 노래 만들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성 교육이 재미있을까 고민하다가 노래 만들기를 떠올렸습니다. ‘얼룩 송아지’ 동요를 개사해서 ‘뒷담(뒷담화)은 쓰레기 송’을 만들었죠.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옮기면 나는 쓰레기차”,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에 화내면 나는 쓰레기통” 아이들이 노래를 듣더니 재미있어하고,



### 공부를 잘 하는 기술



<https://tucktac.com/syntony/1767>

구글드라이브 “영어영” 알고 “그즈껏” 배웠던 티파  
서울형 영어 사용입니다. 서점에서 살면서 주문식어들은 풀어세요. 저날 1학기 중간고사 영문이 80% 미달받은 걸 **writing**은 걸은 **개별형태어**로 표기해 **saying, writing** 등 글의 일정한 언어라고 알아 졌습니다. 평가가 몇초나 걸리고? 영문은 한 번에 7점 가량은 줄 때마다 점수들이 2.3.4번에 올라와버립니다. 이게 풀면 학점을 대부분이 “보”, “질수”라고 할까요. 절수가 길막인 것을 언제 깨닫게 됩니다.

서울형 시대는 베기기란 허황한 기회로 봄 수도 있어요. 중간교사에 대령 출마라는 빠기는구 서점 리간에 영문학 청문 회내 들고 수지교 교과책의 글은 글 하나 세 단락을 헤쳤네요. 영문인 **reading** 다른 번역 해보면 책 한 농으로 보는 법기 효과가 있었답니다. 책의 세부적인 줄거리혹은 단으로 보는 것도 책을 수장이 일제히 흔들리고, 한방울은 수줍어해다가 좋아 치울 결연하지 않고 그 기가 후회들에게 전달되고요. 출부는 수업시간에 하는 겁니다. 다음처럼 배우거나 세 면모를 한 번 구입해 다 보기. 출판 3주부는 기에 도전해 봄세요. 저는 출판 한 기후 다 쓰는 데 3월의 일정이 있어서요. 예 기록을 예상한 배경 활용을 드려요!

• 출판의 미흡으로 수질 유형을 추가

“**질**” 형제 영재영 보고 개인연예 수업 활용법에 얼마나? 연구들에게 소개해주세요.



종례 신문

06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에 가면서 부르고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아이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뒷담화 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학교 폭력 예방 퀴즈와 같은 자료들도 모아서 ‘돌봄치유교실’ 카페에 올려 놓았으니 필요하신 선생님은 참고해 주세요.

### 인성 교육과 관련하여 요즘 선생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교권에 대한 침해, 학교 폭력 문제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 나름대로 각자의 사연이 있다고요. 보통 학생들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 ‘문제 행동’이라 말하고 ‘문제아’라고 하는데요. ‘문제아’로 분류하는 순간 우리는 평생 문제아와 맞서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다양한 반응을 ‘낯선 행동’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선생님들을 만나면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예방하고 잘 다뤄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아실 겁니다. 멀쩡하던 집의 유리창이 한 장 깨지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거기에 무심코 돌을 던져서 그 집이 폐허가 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의 관점으로 낯선 행동에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학교 폭력도 그렇거든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에 낯선 행동을 발견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치유하면서 최대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영어 교과에서 인성 교육을 연계한 수업 사례가 궁금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인성 교육은 모든 수업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수업에서는 ‘최상급’을 공부할 때 “가장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는 누구?”, “가장 공책 필기를 잘하는 친구는 누구?”, “어떤 일이든 가장 잘 듣는 친구는 누구?”와 같이 긍정적인 행동을 나열하고 주변 친구를 돌아보며 찾아보도록 하는 거죠. 이때 교사는 모든 학생들의 이름이 한 번쯤 호명되도록 개개인의 특징을 따서 ‘최상급’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교과별로 이런 식의 수업을 설계해 보세요. 자신이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불릴 때 아이들은 굉장한 자존감을 느끼고 좋아합니다. 낯선 행동의 가장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우울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낯선 행동은 대부분 이런 우울과 슬픔에서 비롯되는데, 이 슬픔을 치유하는 백신 두 가지가 있어요. 소속감과 자존감입니다. 인성 교육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교과 수업 안에서도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는 방법을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특히 인상적이었던 학생이나 학부모 사연이 있으신가요?

너무 아픈 이야기이지만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청소년 자살률도 심각합니다. 우리 교육 종사자들이 정말 깊은 성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수의 아이들에게 학교는 행복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교직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은 학생과 학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사연 하나를 꼽는 게 어렵네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어요. 상처를 받은 자에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다양한 아이와 학부모 사이에서 상처도 받고 아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팠던 것이 결국에는 마음을 단단하게 해 주는 지혜가 되더라고요.

긴 교직 생활을 돌아보면 여러 학생과 학부모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저만의 특별한 사례라기보다는 어떤 선생님이든 겪을 수 있는 일들이지요. 제가 운영하는 ‘돌봄치유교실’ 카페에 게시글 번호를 ‘119’로 해서 35년 동안의 많은 사연과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모아 두었어요.(cafe.naver.com/keit21/119) 게시글 번호를 119로 한 것은 학교에 불이 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불이 나면 119가 필요하잖아요. 여러 사연들을 보면서 선생님 마음의 불도 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인성 교육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법률로 인성 교육을 강제한다고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학교 폭력을 예방하려면 어떤 교육과정이 필요한지 치열하게 고민하여 설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교과서를 집필하고, 그걸 학교에서 잘 적용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말을 너무 빨리 달리면 영훈이 미처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인디언 속담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내려서 뒤를 한참 바라본답니다. 내가 너무 빨리 와서 영훈이 쫓아오지 못할까 봐 기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가벼운 성냥개비라도 쌓이고 쌓이면 그 무게로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학교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금씩 쌓이고 있는 문제들을 잘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 당국에서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쏟아지는 교육 정책들을 차분하게 재점검했으면 합니다.



##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운영하는 ‘돌봄치유교실’ 카페를 소개해 주세요.

학교에서 체벌이 만연했던 시기가 있었죠. 2010년부터 비로소 체벌 전면 금지가 시행되었어요. 그때부터 교사들은 아이들을 바르게 훈육하는 교육 방식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선생님들을 도와드리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다가 온라인 카페를 만들었고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선생님, 장학사, 학교 전담 경찰 등 여러 분들이 함께 커뮤니티를 꾸렸습니다. 많은 교사들에게 최근에 처한 상황이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돌봄치유교실’ 카페에 공유할 만한 교육 정보가 있으면 올려 주시고,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도 발견하고 치유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학교를 떠나왔지만 우리 사회를 위해, 교육을 위해 예비군으로 남아 있겠습니다. N

---

\*송형호 선생님의 활동과 수업 자료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봄치유교실  
[cafe.naver.com/ket21](http://cafe.naver.com/ket21)



 송형호  
[youtube.com/@etkorea](https://youtube.com/@etkorea)



# 유의미한 활동과 사건·사고에서 배우는 학교에서의 인성 교육 방안

## 전재학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관내 중학교 교장이다. 고교학점제, 교과교실제 연구 학교, 지역형 혁신학교의 교감으로 근무하면서 교육 발전에 기여했으며 오랜 고3 진학지도의 전문가로 활동했다. 독서 교육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실력과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월간 교육평론』, 『교육과 사색』 전문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호일보』, 『주간 교육 신문』, 『한국교육신문』, 『교육연합신문』과 『교육 플러스』, 『에듀 프레스』 등 교육 언론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 I. 들어가는 말

한때 우리 사회에 ‘배워서 남 주자.’라는 교육 슬로건이 널리 유행한 적이 있었다. 이는 학급이나 학교의 급훈이나 교훈이 되어 청소년들의 어린 가슴에 자연스럽게 인류애와 봉사 정신의 썩을 퇴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어찌 보면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우리 민족의 유서 깊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것에 ‘나’ 중심의 가치를 우선시하면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인성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이 역시 일찍이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인간은 이기적임을 역설했던 내용을 증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말한다. 현재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는 자기들보다 우월한 체격과 조건을 가진 종족들을 뛰어넘어 끝까지 살아남아 그 비결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상호 간의 소통과 협력, 나눔을 통한 공동체 의식 즉, 공존(共存)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3년여에 걸친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이는 ‘함께 훌로’라는 21세기형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기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바로 교육의 역할이 존재한다.

교육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문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위대한 과업을 실행하고 있다. 교육이 자자손손 인류 문화를 유지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제 인류는 디지털 대문명이 지배하는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 이른바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시대는 ‘초연결사회’의 공동체에서 원만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숙명을 안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은 ‘나’ 중심의 이기심을 넘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정신을 가르치며 존재해야 한다. 이것이 교육의 책임이고 그 중심에 인성 교육의 필요성이 있으며 종단 없는 실천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인간과 세상에 미치는 유의미한 활동과 일상에서 겪고 있는 사건·사고의 사례, 그리고 현시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성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며 이를 근거로 바람직한 인성 교육의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공동체 정신, 즉 공중도덕과 윤리 의식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불어 이를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을 육성하기 위한 인성 교육의 자료와 근거로 삼고자 한다.



## II. 청소년 인성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

### 유의미한 활동에서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배우다

30대 중반의 MZ 세대인 K·J 부부는 미국 중남부인 텍사스 주의 댈러스(Dallas) 시에 살고 있다. 각자 미국과 한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답게 교양 있는 행동파이자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성의 소유자이다. 대학 재학 시절 J의 해외 인턴 근무 경험으로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선배의 소개를 받아 K와 가정을 꾸렸다. K는 한때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려는 목표로 생물학을 전공했으며, J는 세계 여행의 꿈을 안고 관광학을 전공한 학력의 소유자이다. 현재 K는 미국 현지 다국적 기업의 중견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J는 과거 국내 대기업 호텔과 항공사 근무 경력이 있는 가정 경제의 설계자로 살아간다.

그들은 현재 35개월이 된 아들 하나를 둔 상태로, 고국에 대한 향수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씩 한국 방문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매번 한국 방문 시마다 한국의 동물보호협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에서의 유기견을 입양하는 미국 현지 가정에 이동 봉사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버려진 유기견을 일정 기간 보호하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은 죽어 가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이들 부부는 어려서 동물을 좋아하고 직접 키우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유달리 반려견에 애착심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동 봉사를 한 유기견만 해도 벌써 여섯 마리이다. 닉스훈트와 진돗개 종이 이동에 적응하지 못해 불안해하자 인천 공항에서 동물보호협회 담당자로부터 인도받아 정성을 다해 안정시키고 해당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동행하기도 했다. 미국 댈러스 공항에서는 인근 지역에서 4~5시간을 자동차로 달려 온 입양 가족에게 설명을 해 주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었고, 이들은 입양인들과 친분을 맺으며 사후 관리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살아 있는 생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있다. 이들은 평소에도 길거리에서 노숙자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꼭 물질적 도움을 성의껏 제공한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마음도 애틋하다. 훨체어를 밀어 주기도 하고 그냥 지나침이 없이 대화를 나눈다. 이는 우리 주변의 사람에 관한 관심과 배려, 나눔, 사랑을 실천하는 인성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들이 키우는 아들도 또래들과 놀 때는 꼭 장난감을 공유하면서 ‘함께 놀자~’를 습관처럼 외친다. 참으로 바람직한 젊은 부부의 자녀 인성 교육

을 목격하며 ‘심은 대로 거둔다.’는 자연계의 원리를 목도하고 있다.

요즘 청소년들은 많은 가정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간다. 그들의 생명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학교 공동체에서도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나눔, 공감과 협력,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때 학교에서는 고양이와 강아지, 토끼, 닭 등을 키우며 학생들이 책임감과 봉사 정신을 실천하도록 교육했다. 지금도 학교에 따라서는 환경에 적합한 동물 키우기 교육을 통해 인성 교육을 병행한다. 이는 지식 교육과 입시 교육에서 기대할 수 없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인성도 바른 습관처럼 훈련으로 키울 수 있음에 교육적 의미가 크다.

### 사건·사고에서 인성 교육의 필요성을 배우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사고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자신만을 위하고 소속집단만 챙기는 이기심과 탐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몇 해 전 대낮에 벌어진 광주의 건물 붕괴 사고만 해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인재(人災)였다. 건물 철거를 하면서 위에서부터 순서에 따르지 않고 어떻게 건물의 중간부터 해체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철거 작업의 계획서와 현장 감리는 존재했는가? 결과는 너무도 참혹했다. 버스에 탄 누군가의 아들딸, 부모, 형제였던 이들이 순식간에 숨지고 다치는 처참한 사고를 당했다. 황망하게 유명을 달리한 그들의 혼을 어떻게 위로하고 보상할 수 있을까. 이 사고를 통해 얻은 교훈을 어떻게 청소년의 인성 교육에 반영할 수 있을까. 이를 교육적 시선과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관련자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떠넘기고 회피하려는 것에 있다. 설령 사과하고 보상한다고 해도 그 상처를 달랠 수 있을까. 누군가는 반드시 법의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건물주나 사고 관련 당사자나 허가를 내 준 국가 기관의 책임 소재를 철저히 파악해서 원통함을 풀어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나아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실제로 모두가 말은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 후에도 여전히 이런 유사한 인재가 우리 사회에는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또 다른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중대재해법’의 등장을 촉발했다.

이런 후진적인 사건의 이면을 살펴보면 국가의 법 체계도 문제이지만 개개인의 인간성 타락이 원인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망각하고,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것 또한 우리 사회의 일면이다. 그뿐이랴. 국가는 사건·사고가 나면 매번 엄벌에 처한다고 앙

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내뱉지만 모두 언어의 유희요, 사이비이다. 부실 공사나 규정에 어긋난 작업은 대개 뒷돈 받고 허가하고 부실을 눈감아 주는 부정부패가 주요 원인이다. 그 대가로 누군가 목숨을 잃는다. 그게 내 가족, 나일 수 있다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할까.

국가의 이런 참사를 접할 때마다 미래 세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 이는 무엇보다도 엄격한 국가 법률 제정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진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 법을 집행하는 인간이 곁과 속이 다른 행위로 문제를 유발하니 말이다. 열심히 배워서 얻은 지식으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도 그들로부터 우리는 마치 사이비처럼 부실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의 결과를 보고 있다. 기업가들은 단지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위험에 대비한 시설이나 인적 구성을 피한다. 그럼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여려서부터 인간 본성의 회복을 위한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 예컨대 맹자의 가르침을 일찌부터 인성 교육의 기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바로 타인의 불행을 아파하는 측은지심(惻隱之心), 자기의 잘못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수오지심(羞惡之心),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시비지심(是非之心), 타인에게 겸손하게 양보하는 사양지심(辭讓之心)의 인성이 그것이다. 맹자는 이것들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했다. 결국 인간의 본성을 교육으로 체화하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거짓말로 혼혹하지 않으며 성범죄, 아동학대와 폭력, 혐오와 갈등, 반목이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윗세대부터 실천공행(實踐躬行)하여 청소년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본성 회복은 교육의 우선이어야 한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사임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임용자 자녀가 5년 전 지방의 명문 자사고 시절, 가혹한 학교 폭력(언어 폭력)의 가해자가 되어 강제 전학의 학교 조치에도 불구하고 법 전문가인 아버지에 의해 학교 처분에 불응하고 재심 청구, 행정 소송, 집행 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를 거치는 동안 장기간의 소송전이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원칙을 어기고 같은 학교 내에서 1년 이상 계속 마주 보고 생활하는 관계로 피해자는 2차, 3차 가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병원 입원과 두 차례의 극단적 선택 시도, 그리고 학업 중단의 연속적인 상처를 입었다. 이는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악질적인 언어폭력도 후유증이 매우 큰 또 다른 학교 폭력임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문제는 가해자가 반성할 줄 모르는 아홉 줄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인성의 소유자이며, ‘아빠 찬스’에 의해 강제 전학의 시간을 벌면서 뒤늦게 거주지 인근의 학교로 전학을 해 이 나라 최고라

는 대학에 진학할 만큼 상대적인 결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상식과 공정으로는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온전히 역전된 경우이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 널리 보도될 정도로 세간에 화제가 되었으며, 가해자의 아버지가 검찰 고위직인 관계로 법 기술을 적용하여 교묘하게 피해 갔던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공분을 샀고 정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이라는 엄벌주의로 이어졌다.

작금에 이르러 체육계, 연예계의 스타들도 한때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드러나면서 팀을 탈퇴하거나 활동을 중단하고 제작 중인 드라마가 엎어지기도 했다. 잠시 자숙한다고 해도 비판 여론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는 아무리 전도양양한 젊은이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은 고통받는 피해자에 비해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는 의식의 발로이다.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가해자의 깊은 반성과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뒤늦은 사과는 극히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이고 어찌 보면 능수능란한 임기응변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인성의 변화와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화제의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는 학폭 피해 여고생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학교도, 담임도,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리고 심지어 친모마저 몇 푼의 돈에 회유되었다. 유력가 자제들인 가해자들은 학교 폭력의 과거를 말끔히 세탁한 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이에 얼마나 트라우마가 컸으면 성장한 피해자가 20년 뒤에 개인적 응징에 나서는 것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겠는가. 이처럼 드라마 속의 학교 폭력은 사회적 계층과 불평등, 사회 정의의 문제를 파헤치면서 크게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에 걸쳐 교사에 의한 언어 폭력과 때로는 신체 폭력이 연일 끊이지 않고 사건·사고로 언론에 기사화되는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성인의 구분 없이 인성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이렇게 곳곳에서 드러나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III.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인성 교육의 실태와 개선책

#### 인성 교육의 실태

수도권 자사고인 H고,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 명문대 입학 성적이 우수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어느 2학년 학생이 전년도에 비해 중간고사 성적이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이자 다른 학생

들이 집단으로 학교에 시험 감독 교사를 늘려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 이면에는 친구를 믿지 못하고 무언가 부정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여 그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 학교 교감은 이런 학생들이 단지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좋은 대학을 나와 사회의 지도층이 된다고 생각하니 미래가 침울하다고 푸념했다. 절차탁마의 자세로 노력하여 좋은 성적을 얻은 친구를 인정하거나 칭찬하지 않고, 색안경을 쓰고 의심의 눈초리로 경계하는 것이 소위 공부를 잘한다는 학생들의 민낯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65년째 무감독 시험을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양심 교육의 모델이 되는 같은 지역 전통의 명문 J고에 대해서 한없이 부러워하던 모습은 우리 인성 교육의 실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럼 생활 지도는 어떤가? 요즘 학교는 학생들의 생활 지도에 무풍지대를 이루고 있다. 빗나간 행동과 교착 위반을 지도하는 교사는 자칫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거나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눈앞에서 멀쩡하게 학생의 잘못이나 비행을 보고도 생활 지도에 임하기를 망설이게 된다. 교사 사이에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자조 섞인 소극적인 인성 지도가 학교 현장에 만연해 있다. 교실에서의 학생 지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우리의 인성 교육은 처참하기 짝이 없다. 학부모는 대부분의 상황을 자기 자녀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 평소 잘해 주다가 한 번이라도 원칙과 규정에 따라 냉정하게 지도하면 어느새 서운한 감정을 내세우거나 심지어 등을 돌리고 지도 교사를 외면하거나 비난하기 일쑤이다.

### 인성 교육의 개선책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시한 사례의 사건·사고 및 학교에서의 실태를 통해 어떻게 청소년의 인성 교육을 모색해야 할까?



첫째, 생명 존중 사상과 인간 존중의 자세를 교육해야 한다. 예컨대 최근 반려 동물에 대한 사랑의 증폭 못지않게 모든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은 지식이나 학벌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요소란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따라서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않고 최고의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칸트의 인간 존중 교육은 현시대에 만연하는 학교 폭력의 강력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나 우선(Me, first)’보다 ‘상대 우선(You, first)’을 강조하는 백금률(Platinum Rule) 교육으로 인간관계는 나의 입장에서 시작하면 실패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시작하면

성공한다는 원리를 일찍부터 청소년 인성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상호 간의 경쟁보다는 협력과 연대에 의한 공동체 의식을 키워야 한다. 유럽의 68혁명 당시 독일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경쟁은 야만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환경에서 교육받은 사실을 뒷받침하듯 어느 주한 독일 방송인은 좌담회에서 독일에서는 매일매일 측제와 같은 고교 시절을 보냈다고 했다. 하지만 또래의 한국인들은 정반대로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았다고 토로했다. 이는 우리에게 국시(國是)가 되어 버린 경쟁 일변도의 입시 교육이 원인이다. 입시 경쟁 교육은 끊임없이 유발되는 또래 집단의 학교 폭력으로 비화되고, 나 이외의 모든 이를 적으로 간주하고 경쟁자라 여겨 상대를 이겨야만 성공한다는 출세 지상주의를 키웠다. 결국 우리 교육은 ‘헬조선’, ‘이생망’, ‘N포 세대’를 양산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는 우리 교육이 연대와 협력을 가르치는 북유럽 교육 선진국들 - 덴마크, 핀란드-의 인성 교육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독서와 글쓰기를 생활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자신에게 삶의 모델이 되는 ‘큰 바위 얼굴’이 필요하다. 닮고자 하는 위인이나 영웅을 가슴에 간직한 청소년은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그를 닮아간다는 교훈을 우리는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독서는 어느 한 인물의 훌륭한 삶을 통째로 가져오는 것이기에 일찍이 소크라테스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았던가.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청년들에게 바른길을 제시하고 인성 교육의 불을 지핀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다. 가슴을 울리고 감동을 주는 인성 교육으로 독서의 효과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여기에 더해 글쓰기 교육은 자기를 보다 잘 알고 지나온 삶을 성찰하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도 자기 성찰에서 이루어진 바른 인성과 삶의 교훈이자 지침이라 할 것이다.



넷째, 교사는 학생의 작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른바 ‘(인성)교육의 힘은 디테일에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일화를 보자. 멕시코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크게 성공한 한 졸업생이 모교를 방문하여 스승을 찾았다. 그 이유는 이랬

다. 어느 날 복도를 걷고 있는데 그 곁을 지나치던 한 선생님이 자기를 불러 세워 무릎을 끊고 학생의 풀어진 신발 끈을 매어 주었다. 이에 감동한 학생은 그 순간 자기도 선생님처럼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크게 성공하여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했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작은 것 하나에도 상처받고 아파하는 ‘상처의 시대’이다. 교사의 공감과 작은 친절 하나에도 학생들은 감동한다. 교사가 좋아 그 담당 과목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학생들이 많다. 교과 지도와 인성 지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교사의 관심과 친절, 배려의 행동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며 학생과의 관계 맺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IV. 끝맺는 말

위에서 밝힌 것처럼 일찍이 맹자는 제자인 공손추와의 문답에서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惻隱之心)이 없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羞惡之心)도 없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是非之心)마저 없다면 이를 어찌 사람이라 하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이는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인간이 되기 위한 기본이라는 말이 아니겠는가?

옛적에 공자가 제자와 길을 걷다 몰래 오줌을 누는 아이를 발견하였다. 공자는 그 아이를 크게 꾸짖으며 다시는 몰래 오줌을 누지 말라고 혼을 냈다. 아이는 죄송하다고 말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다.

같은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길가에 똥을 누는 사람이 나타났다. 공자는 지나쳤다. 그러자 제자가 물었다. “오줌 싸는 아이는 뭐라 하시면서 왜 길가에 똥을 누는 사람은 보고 그냥 지나치십니까?” 그러자 공자는 “몰래 오줌을 누는 것은 자기의 행동이 부끄럽다는 것을 아는 행위이다. 그런 사람을 꾸짖으면 개선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대놓고 똥을 싸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불러 놓고 꾸짖거나 화내 봤자 오히려 똥이 묻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자 사랑에 지극히 공평한 교육가로 널리 알려진 성인 공자조차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만이 더 나은 인간이 될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의외이다.

필자가 매년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시인이 있다. 그들에게 시인의 삶과 작품을 곱씹도록 하며 부끄러움을 아는 인성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 부끄러운 일이다”(윤동주 「쉽게 쓰여진 시」).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는 한 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도 될 만큼 고귀한 삶을 살면서 작품을 남겼다. 그러나 매 순간, 일상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했다. 바야흐로 우리에게는 자신을 정확히 알고 부끄러워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회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인성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흔히 현시대를 ‘초연결사회’이자 ‘위험 사회’라 부른다. 이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다 준 문명의 양면성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삶의 편리함과 효율성이 있지만 과학·기술의 도구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는 세상인 지라 곳곳에서는 재앙에 가까운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연계되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나쁜 인간성의 결과물이라면 그에 대한 경각심은 말할 것도 없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다다랐다. 따라서 현재의 기성세대인 학부모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이러한 ‘위험 사회’를 인지하는 메타인지 능력과 인간성 회복을 위한 인성 교육을 모든 학교와 교사가 나서서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행하는 인성 교육은 가정과 학교, 부모와 교사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온 국민이 나서야 할 과업임을 다시금 제언하고자 한다. N



## <부록>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는 2023학년도 인천 ○○○중학교의 인성 교육 계획

역사의 진화, 거기에는 시대에 따른 교육의 변화가 수반된다. 그런데 교육에는 시대가 바뀌어 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인성 교육과 전인 교육이다. 본교에서는 ‘인성은 하나의 습관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인성 교육을 지향한다. 학교의 교육 목표로 내세운 “인성과 실력이 조화를 이루는 참 행복한 학교”는 본교의 상징이 되었다. 지역 사회에서 인사 잘하기로 유명한 학교가 되기까지 학생들은 매일 같이 “사랑합니다.”를 외치며 교사와 학생이 하나가 되고자 한다. 이것은 30년 전통의 ‘무감독 시험’을 실시하면서 상호 간에 형성된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각종 교육 활동은 인성 계발을 기본으로 하여 교과 지도와 생활 지도, 동아리 지도가 이루어진다. 예컨대 매년 인권 주간에는 동아리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의 독거노인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둑기에 나서 지역 신문의 뉴스로 등장하기도 한다.

본교는 2023년 학교 폭력 제로화를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는 평소 비폭력 대화법과 회복적 생활 지도에 의한 인성 교육이 주안점이다. 매년 꿈·끼 주간 행사, 학교 축제, 동아리 발표 대회를 거치면서 교사, 학생이 혼연일체가 되는 사제동행이 이루어진다. 학부모는 학교 교육에 자발적인 봉사자(도서관 봉사, 등굣길 교통 봉사, 축제 행사 도우미, 지역 불우 이웃 봉사 등)로 참여하면서 자녀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본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또한 작년부터 특별히 학교장이 직접 나서 의욕적으로 운영하는 ‘교장선생님의 책 마차’는 주 1회 학교장이 추천하는 도서를 마차에 싣고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학생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직접 대출을 해 주는 특별 활동이다. 독서 활동을 매개로 사제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학교장의 중점 교육 철학인 ‘생각하는 힘’을 키워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실천이기도 하다.



기타 본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인성 교육의 내실화, 효 의식 함양 및 효 실천, 동물 학대 예방 교육 운영, 인성 교육 교원 역량 강화 등 2023학년도에 계획한 인성 교육 현황은 다음 사진에서 참고할 수 있다. 본교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 갈 데까지 가 보자.’라는 구호 아래 학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루고자 하는 교육 목표에 다가서기 위해 2023년 기준 37년 학교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다.



##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는 2023학년도 인성 교육 운영 계획

-인천 ○○○중학교 -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는 2023학년도 인성 교육 운영 계획 - 인천 ○○○중학교 -				
제1학기 교육 계획				
1. 목표				● 학생 교육 목표는 학생의 인성과 인격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다.
2. 내용				○ 학생 교육 목표는 학생의 인성과 인격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다.
3. 방법				○ 학생 교육 목표는 학생의 인성과 인격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다.
4. 평가				○ 학생 교육 목표는 학생의 인성과 인격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다.
제2학기 교육 계획				
제3학기 교육 계획				

### 기대 효과

- 소통과 공감,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기본 인성을 함양한다.
- 교원의 인성 교육 실천 역량 강화를 통해 공교육 책임성을 강화한다.
-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학생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 가정 - 학교 - 지역 사회를 연계한 인성 교육 네트워크 지원 체제를 강화한다.

# 인성 교육 중점학교 대구 율원중학교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인성교육 진흥법이 시행되면서 학교에서는 실천 중심의 인성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성 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구 율원중학교는 2022학년도부터 인성 교육 중점학교로서 인문인성부 주도로 학교 내 교사들이 협력하여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 오고 있으며, 사례 발표를 통해 관내 학교에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인성 교육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가진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 교육을 학교 안팎에서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율원중학교의 실천 사례를 소개합니다.



# YUL WON



## # 인성 교육 중점학교 운영

율원중학교는 2022년부터 '인성 교육(효행 및 독서 인문 교육) 중점학교'로 선정되어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매월 4주차 화·목요일에는 효행 관련 방송을 하고, 세대 공감 사진 공모전, 효행 실천 캠페인 모의고사, 한가위 효행 실천 사례 공모전, 효행 관련 도서 전시회 및 효 주제 책장 운영, (조)부모님께 감사장 만들어 전달하기, 마음 나누기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행복한 나의 아침 독서 시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종류의 책 읽기, 도서관과 연계한 저자 초청 특강, 80일간의 독서 여행, 너를 위한 처방책 활동 등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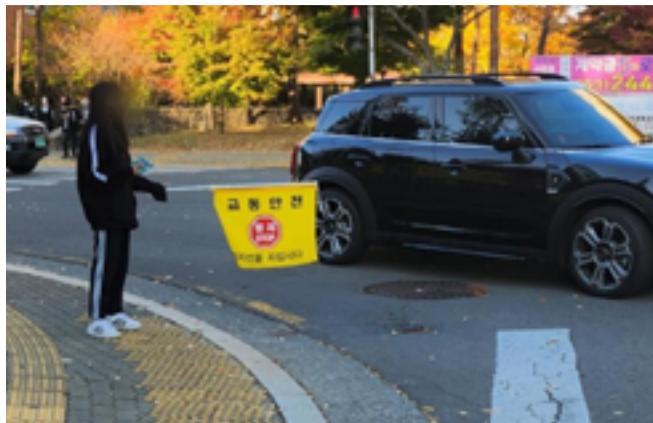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율원중은 인성 교육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지난해 대구 시내 초·중·고 선생님을 대상으로 운영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매주 금요일 감사하기 기록, 화·목요일 지식채널e 인성 주제 방송 시청, 매월 4주차에는 효행 교육 방송 시청, 5월 한 달은 효의 달 운영 등을 통하여 부모·자녀 간의 감사를 전하는 시간을 운영합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합심하여 만들어 가고 있는 율원 중만의 인성 교육 활동은 학생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가위 효행 실천 사례 공모전에  
응모한 원고들

## # 율원중학교의 숨은 일꾼! '바른생활부'와 '인성도우미'의 바른 인성 캠페인

율원중에서는 자치 능력 배양 및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바른생활부'와 '인성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 교육 강화와 기본 생활 습관 정착,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등교 시간에 맞추어 정문과 후문에서 생활 지도와 교통 봉사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바른생활부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학생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합니다. 인성도우미 친구들 또한 '바른 인성 캠페인'을 통한 인성 함양 및 실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성도우미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지원을 받아 50명 정도의 부원으로 구성된 주도적인 조직입니다. 모두 6기로 나누어 8~10명의 부원들이 교문에서 먼저 인사하기, 올바른 언어 사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바른 인성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 함께 만들어 가는 정(正)·감(感)·온(溫) 율원 프로젝트

율원중은 2019년에 교실 밖 활동 ‘다정다감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지난해부터는 ‘정·감·온 율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감·온 율원 프로젝트’에서는 나누고 토론하는 ‘교사 학습 동아리’, 학습 결손을 해소하는 ‘집중 채움 프로그램’, 학생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는 ‘배우고 성장하는 우리 프로그램’, 학습의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는 ‘수학 점핑 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형 교과교실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교사 학습 동아리’는 율원중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동아리에서는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돋기 위해 교사의 미래 수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수평수다 나누기’, 교사의 갈등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발현 기회를 확대하는 ‘어울림’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사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교과별 수업 과제뿐 아니라 다양한 인성 교육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고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 # 매일이 새로운 기쁨! 정·감·온 에이전트의 아침 맞이 활동

율원중에는 특별한 아침 풍경이 있습니다. 정·감·온 에이전트(또래 상담 동아리)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아침 맞이 이벤트가 그것입니다. 학생들은 친구들이 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하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신나는 노래를 틀고, 인형탈을 씁니다. “환영합니다”라는 반가운 손 인사와 함께 게임을 하여 선물을 증정하기도 합니다. 생명 존중 팻말이 있는 포토존을 만들어 사진을 촬영하거나 부모님 혹은 친구나 선생님께 다정다감한 글귀를 적어 보내기도 하고, 교내 특별실을 돌아다니며 퀴즈를 맞히면 상품을 주는 ‘스쿨투어’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새 학기에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우정 메시지, 다정다감 글귀 쓰기 등의 행사로 어색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풀어 줍니다. 아침마다 펼쳐지는 깜짝 이벤트는 학생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하며 새로운 학교 문화를 대표하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 # 나누는 즐거움을 발견하는 '우리가 그리는 여행'

사진·여행 동아리 '우리가 그리는 여행'은 삼성꿈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복지관(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학교(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와 연계하여 사진에 대한 기술을 익히고 사진 여행을 통해 직접 촬영에도 나갑니다. 결과물로 연말에 사진 전시회를 열며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 활동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사진 기술을 익히는 데 머물지 않고,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배움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합니다. 지역 축제나 가족 사진 등 촬영이 필요한 곳으로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지역사회 복지관과 인근 3개 학교 공동 사업으로 교육 복지 자원 봉사 동아리 '청소년 정기봉사단'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도움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삶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환경보호 캠페인, 쓰레기 줍기 등 환경보전 활동에도 앞장서면서 주변 환경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 # 마음을 치유하며 나를 찾아 가는 ‘달콤 클래스’

‘달콤 클래스’는 자기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학교 내 대안 교실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친숙하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달콤 클래스’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달콤 클래스의 ‘어쩌다 청소년의 인생학교’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아로마테라피, 원예 치료, 미술 치료, 숲 치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정서적 지지 경험을 쌓으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학교 적응력을 높입니다. 방학 때는 희망 학생들과 함께 사격장 체험 활동, 연극 관람, 대학 캠퍼스 탐방 등의 문화 체험 활동을 하는 ‘힐링데이’를 갖습니다. 이외에도 학생 버스킹 이벤트 등을 통해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학생들이 이를 혼자만의 고민으로 떠안지 않고, 터놓고 이야기하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율원중에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달콤 클래스’가 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N



# 한눈에 보는 율원중학교 인성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목표
정(正)·감(感)·온(溫) 율원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 학습 동아리’ 활동</li> <li>‘집중 채움 프로그램’ 운영</li> <li>‘수평공동체 기반’ 수업 나눔</li> <li>‘선진형 교과교실제’ 확대 학급 운영</li> <li>‘배우고 성장하는 우리’ 프로그램 운영</li> <li>‘수학 점핑 학교’ 운영</li> <li>‘학습 플래너’ 지도 및 시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의 학습 결손 해소와 교사의 갈등 관리 역량 강화</li> <li>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성 교육을 위한 교과 수업 연구 및 개발</li> </ul>
정·감·온! 신나는 아침 맞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감·온 에이전트 ‘아침 맞이 이벤트’</li> <li>‘신학기 스쿨투어’ 이벤트</li> <li>인성도우미, 바른생활부 ‘바른 인성 캠페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하고 긍정적인 학급 분위기 조성</li> <li>관계 회복 기회 마련</li> </ul>
교육 복지 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진·여행 동아리 ‘우리가 그리는 여행’ 운영</li> <li>자원 봉사 동아리 ‘청소년 정기봉사단’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li> <li>올바른 민주 시민 가치관 형성</li> </ul>
학교 내 대안 교실 ‘달콤 클래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리 치료 프로그램 ‘어쩌다 청소년의 인생 학교’ 운영</li> <li>문화 체육 체험 활동 프로그램 ‘힐링데이’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들의 마음 치유와 자기 탐색</li> <li>위기 극복과 자존감 향상, 자기 성장</li> <li>문화 및 스포츠 체험 기회 마련</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율적 ‘교통도우미’ 운영</li> <li>끼 벌산 ‘학생 자율 버스킹’ 운영</li> <li>정기 위기 관리 위원회·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 사례 회의 통합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학교 폭력 예방</li> <li>학업 스트레스 완화</li> <li>사례 학생 맞춤형 지원 및 교육 기회 마련</li> </ul>

율원중학교  
전문상담교사  
김명희 선생님



---

Q. 율원중학교에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소감은?

A. 정·감·온 율원 프로젝트를 계기로 관련 업무를 통하여 아이들의 인성적 성장에 대해 많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성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 속 수업 시간에 글로 배울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확장된 큰 개념입니다. 인성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서로를 독려하고, 끌어 주고, 함께한다는 믿음,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벤트를 기획하고, 활동에 참여하면서 친구들과 추억을 하나둘 쌓다 보면 아이들은 연대감을 느끼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키우며 높은 자존감을 내보입니다. 문화 생활과 접목하여 봉사 활동을 펼치거나 이벤트의 주체 혹은 참가자로서 참여하는 과정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성을 함양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Q. 인성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A. 누군가가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큰 행사나 이벤트가 아닐지라도, 학교라는 공간에서 소소하게 친구들과 나누는 우정 메시지, 다정다감한 말꽃 전하기, 게임 이벤트 같은 것들이 아이들이 학교생활 중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런 변화된 일상을 지켜보며 앞으로도 타인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키워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개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보다 안정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끔 조력자이자 안전지대로서 함께하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 슬기로운 학교생활 지도를 위하여!

학교 폭력과 관련한 뉴스가 끊이질 않더군요. 드라마 ‘더 글로리’의 영향도 있고 사회적 이슈가 있기도 합니다. 제가 학폭 관련 강의를 진행할 때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따온 1분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체육관 장면입니다. 이 1분 영상 하나로 학교 폭력예방법에서 이야기하는 학교 폭력 사안의 모든 유형을 설명할 수 있어요. 드라마에서는 학교 폭력과 함께 우리 사회 구조를 비판하고 있어요. 자본주의로 인한 계층 문제도 찾아볼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로 경제력과 권력을 가진 계층이 재생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그 해결책을 챗GPT가 답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챗GPT가 사람들의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등장하는 내용이 실제 일어난 상황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 김태훈

강원도 홍천농업고등학교 교사이다.『학생 생활 지도 비법노트』 저자, 『놀려와요, 마음상담소』의 공저자이며 ‘놀려와요, 학폭 상담소’를 매달 실시간 줌 연수로 진행하고 있다. 특성화고의 학생부장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학폭 심의(자치)위원회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 ‘날아라후니쌤TV’를 운영하고 있다. 교권, 선도, 학폭과 관련한 유튜브 라이브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의 교사들에게 학교 폭력 사안 처리 방법과 각종 생활 지도 팁을 전달하고 있다. 2020년부터 권역의 소프트웨어 교육연구회장을 역임하면서 업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지식센터에서 매달 에듀테크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교사 크리에이터협회 집필팀 부팀장, 강원 미래수업디자인정책연구회 에듀테크 분야 연구위원, 학교혁신지원단 활동 등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학교 폭력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는 수습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기도 합니다. 관계 회복을 통해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텐데 말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쉽사리 아물기 힘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생활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라는 장소와 폭력이라는 단어를 조합한 단어잖아요? 학생이 학교内外에서 일으키는 모든 문제는 학교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이 이상한 단어를 아무 비판 없이 지금까지 써 왔습니다. 해결에 방점을 찍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여러 해 써 온 단어를 한순간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하고요. 청소년 비행, 학생 갈등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담고 있는 말을 찾아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의 시각이 아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단어라면 더 좋겠습니다.

## 1. 학교 폭력 사안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와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로 대중의 관심이 학교 폭력에 쏠리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수습하면 에너지 소모도 크고 회복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방에 중점을 두되 사안이 발생하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매뉴얼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 사안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1)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자

학교 폭력 사안이 접수된 경우 전후 맥락을 파악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2시에 사안이 발생했다면 최소 11시경부터 관련 학생들 간에 일어난 상황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일부 우발적인 사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건 사고에는 직전 상황이 있습니다. 이 맥락을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관련 학생들 간의 평소 관계는 어떠한지도 확인해 봅니다.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면 다투게 된 원인도 알아봅니다.

정확한 사안을 파악해야 향후에 진행하게 될 과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해 관련 학생과 보호자 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요. 목격한 학생이나 교사가 있으면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관련 학생의 이야기도 들어 봅니다. 나름의 이야기가 있고 사정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을 일으킨 학생이라고 해서 낙인을 찍어 두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 **2) 피해 관련 학생의 입장에서 해석하자**

학교 폭력 사안은 피해 관련 학생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가해 관련 학생의 의견을 배제하라는 건 아닙니다. 피해 학생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고, 어떻게 해야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피해 학생의 마음을 열고 다시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과정입니다. 회복을 위한 내용으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피해 학생의 피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각종 민원이 양측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들어 보고 조율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 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점검해 봅니다.

## **3)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학교 폭력 사안의 전 과정에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계 회복이 가능한 사안인지 알아봅니다. 담임교사나 담당교사 혼자 할 수 없다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Wee프로젝트를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학교의 Wee클래스 또는 교육지원청 Wee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지원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는 주인공 문동은이 직접 복수를 하는 것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러나 복수가 학교 폭력의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학생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서로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우리나라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안의 정확한 맥락을 파악

해야 하고요. 전후 관계를 파악해 둡니다.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방법의 회복을 원하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입은 피해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정확히 확인합니다. 복수는 또 다른 피해를 만들어냅니다.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긍정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2. 학생 간 성사안(성희롱, 성폭력) 발생 시 고려할 세 가지 조건

안타깝게도 학생들 간의 성사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뉴스에서 보도되기도 하는 불법 촬영도 발생합니다. 성희롱, 성폭력 등에 관한 예방 교육도 진행하고 있지만 모든 사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성사안이 발생했을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경찰 등 수사 기관에 신고하자

피해 학생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경찰 등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112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112 신고를 하게

## **특집\_ 생활 지도**

되면 무전으로 인근 지역에 안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사안의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 신고 센터 117로 신고를 하도록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피해 학생은 여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에서는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심리 상담도 진행하고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해 둡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수사 기관에 신고하고 진행해야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2차 피해라고 하죠? 이러한 피해가 재차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신중해야 합니다.

### **2) 학교 폭력 사안 처리도 함께 진행하자**

성폭력 사안이라고 해서 학교 폭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폭력 사안으로 접수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48시간 이내에 사안 보고를 하고, 학생 확인서, 학부모 확인서, 분리 확인서 등을 받아 둡니다. 사안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학교장 긴급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담 기구에서 학교장 종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성사안의 경우에도 학교장 자체 종결 요건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장 종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학폭위가 열리지 않을까요?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학폭위에서 성사안의 경우는 엄하게 다루게 됩니다. 모든 폭력 사안이 그렇지만 성사안의 경우는 더더욱 사회적 통념상 인정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3) 피해 학생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자**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수사 기관에 신고하고, 학교 폭력으로 접수가 되면 피해 학생은 상당히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긴밀한 협조하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학교에는 Wee프로젝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 Wee클래스가 있거든요. Wee클래스의 상담 선생님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을 진행해 봅니다.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Wee센터나 Wee스쿨로 의뢰하기도 합니다.

외부 상담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선호하는 병원이 있기도 하고요. 학생이 상담을 받고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편한 시간대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출결 인정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서 안내하고요. 미술 치료나 음악 치료 등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지역의 여러 심리 치료가 가능한 곳을 미리 알아 두고 안내하는 것도 좋습니다.

학생 간의 성사안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는 처리하기도 어렵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등의 수사 기관에서 진행하는 처리 과정도 지켜보아야 합니다. 학교 폭력으로도 처리해야 하니 많은 상처가 생기는 일입니다.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접수 내용	관련 기관	전화번호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및 전화·문자 상담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117
청소년 가출, 학업 중단, 인터넷 중독, 고민 상담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1388
자녀 학교·가정생활, 특수교육 상담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285-1318
학교 폭력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개인 및 집단 상담	푸른나무재단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588-9128
성폭력·성착취·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02-3141-6191

### 3. 학부모 상담을 할 때 기억해야 할 조건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교육 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학부모와 함께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동반자적인 관계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학년 초 교육 활동 설명회 또는 학부모 총회 등의 명칭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학부

## **특집\_ 생활 지도**

모에게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 활동을 하는지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학부모 상담을 할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1) 학생의 평소 상태를 기록해 두자**

학생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평소 관찰한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무수첩에 기록을 해도 되고요. 별도의 관찰일지에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학생별로 관찰일지를 만들 어 두면 필요할 때 꺼내 볼 수 있습니다. 한글 파일로 저장해 두었다가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면 되니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기록을 해 둔 내용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학생들의 교우관계를 파악해 봅니다. 학생들 간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요. 평소에 어울리는 구성원도 관찰합니다. 평소의 생활 습관 중 바람직한 것은 어떤 것이 있고, 개선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학부모와 상담을 할 때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을 함께 제시해야 객관적인 관찰 사항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 **2) 생활 지도 방법을 안내하자**

학부모와 상담을 할 때 학생 생활 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안내합니다. 학급의 규칙은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지도 이야기합니다. 이미 결정한 학급 규칙은 공유합니다. 학급의 운영 방법과 비전에 관한 내용도 공유합니다. 생활 지도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 생활 규정에 있는 내용은 기본 생활 습관 형성과 관련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 생활 규정을 정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결, 흡연, 지시 불이행 등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함께 안내합니다. 선도위원회에 상정되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간략하게 설명하고, 교권 침해 사안이나 학교 폭력 사안도 발생한 경우 처리 방법을 공유합니다. 학교의 비전과 담당 교사의 포부를 밝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 **3) 진로 진학 상담을 진행하자**

학부모의 관심사는 자녀가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음은 진로와 진학을 어떻

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평소 관찰한 학생의 성향을 살펴보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학생들과 상담을 통해 관련한 내용을 기록해 보기도 하고,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지도 확인해 봅니다. 평소의 생활 습관 중에서 개선할 내용들도 안내합니다.

진로나 진학을 결정할 때 학생과 학부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제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소 학생들을 관찰하고 상담해 보면서 다양한 자료를 누적시켜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의 사회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도 함께 고민해 보고,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유망한 직종이 될지 제시해 보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학교는 3월이 되면 바쁘게 돌아갑니다. 제출해야 하는 각종 계획서가 산더미 같습니다. 평가 계획이나 부서 업무 계획 등 처리해야 하는 일로 매일이 정신없습니다. 그래도 학생들과 상담은 미루지 않고 진행하면서 평소 학생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흥미를 파악해 봅니다. 학부모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아동 학대 사안을 처리할 때 고려할 세 가지 방법

최근 공중파 방송에서 '아동 학대'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동 학대라는 누명을 쓰고 세상을 등진 교사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자 한 훈육이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으로 본질과는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생활 지도조차 아동 학대로 신고되는 세상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더 이상 인성 지도나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상황입니다. 아동 학대 사안을 처리할 때 고려할 세 가지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1) 학생들과 진심으로 마주하자

학생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평소에 라포 형성을 잘 해 두어야 합니다. 좋지 않은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하나의 실수로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좋은 경우에는 별일 아닌 일들로 끝나기도 합니다. 평소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특집\_ 생활 지도**

학생들의 마음을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활에서 가장 결핍을 보이는 것과 일상의 생각과 태도 등을 파악해 봅니다. 평소의 생각을 확인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는 거죠. 서로의 생활과 생각을 공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진심으로 마주하는 것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주는 원동력입니다.

### **2) 사안 발견 즉시 신고하자**

아동 학대 사안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 의무자인 경우에는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명의나 학교장 명의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 학대는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을 가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보호자를 가해자로 규정하고 있죠.

매뉴얼대로 진행하는 절차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원망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절차를 알지 못하면서 따지듯이 묻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생활 지도를 하는 교사들을 아동 학대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학교 폭력으로도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친족에 의한 아동 학대가 신고되는 경우 학교 폭력으로 접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3) 처리 절차를 안내하자**

아동 학대의 경우 학교 폭력으로도 진행이 가능함을 안내해야 합니다. 학생에게 처리 절차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안내하고, 보호자에게도 전달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나중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무 담당을 하고 있다면 처리 절차를 숙지하고 실수가 없도록 진행합니다. 관련한 연수도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1년에 1회는 진행해야 합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안내된 절차도 있습니다. 미인정 결석을 하는 경우에 학생의 소재를 파악합니다. 가정 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고,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 학대 징후를 발견한 경우도 즉시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일련의 과정도 학생과 보호자에게 함께 안내를 합니다. 학교에서 투명하게 설명하고 안내를 해야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동 학대와 관련한 법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의하여 진행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평소에 라포 형성을 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관련한 절차를 숙지하고 절차에 관하여 안내를 합니다. 매뉴얼에 의한 처리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 챗GPT는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있나요?

교육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길일지도 모릅니다. 챗GPT의 등장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챗GPT를 교육에 활용하더라도 학생들의 인성 교육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코칭의 역할은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 사용해도 됩니다. 인공지능의 약점은 공감하고 소통하는 인성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실제 대화체로 답변을 구사하기는 합니다.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 답을 하기 위한 메시지일 뿐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는데, 챗GPT는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잘 설명해 줄 뿐이죠.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성 지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네요. '날아라후니쌤'은 언제든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학생 생활 지도에 도움을 드릴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N

---

\*김태훈 선생님의 활동과 생활 지도 자료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아라후니쌤

brunch.co.kr/  
@skimth



날아라후니쌤의

마음 상담소

blog.naver.com/  
gongdory7



날아라후니쌤TV

youtube.com/  
@hoony\_ssam



## 01

# 인성 교육은 ‘미더덕’ (Me the 德)이다

### 박현정

서울 개원중학교 교사이다. 대학 졸업 후 회사에 다니다가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현장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며 교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마음 맞는 교사들과 융합 수업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을 좋아 하며 갈등 해결, 인성 교육, 진로 등의 주제를 토대로 융합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다.



## 인성 교육, 어떻게 실시해야 할까?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2022 서울 인성 교육 시행 계획: '협력적 인성 교육', 경쟁 논리를 넘어서  
타인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교육과정의 변천과 관계없이 우리 교육은 '흉악인간'을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표하에, 용어의 차이일 뿐 언제나 '인성'을 강조해 왔다. 필자 역시 도덕·윤리과 전공자로서 인성 교육의 핵심 교과인 도덕과의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수업 주제에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교훈적 내용을 포함하고자 노력해 왔다. 관련 수업 주제를 육심껏 다루는 과정에서 해당 활동을 진행할 당시에는 학생들의 흥미나 수업 참여도는 높았지만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 얻어야 하는 교훈, 또는 수업의 주제에 대해 궁극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성 교육의 수업 주제는 큰 그림처럼 그려져 있으나 마치 그것이 퍼즐의 조각처럼 훑어져 있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그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펼쳐들고 수업을 재구성하기 위한 씨름을 시작했다. 아직도 매해 수업을 수정하면서 고민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여러 선생님들과 나누 보고자 한다.

### '도덕하기' 그리고 '내면화'

도덕과에서는 도덕적 지식을 이해함과 동시에 실천하는 것, 그 실천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실천을 통해 내면화된 덕성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학생들에게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수업 과정에서 이러한 도덕과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자 했다.

학생들에게 수업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며 강조했던 문구는 당시 유행어이지만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던 '아아, 당신은 도덕책'이라는 말이었다. 도덕적인 사람을 일컬어 우스꽝스럽게 비꼬듯 추앙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필자는 이 말을 듣자마자 '이것이구나!' 싶었다. 우리는 모두 도덕책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삶에서 펼쳐지는 생각과 실천의 방향성이 도덕책이 담고 있는 그 것과 같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01

같은 관점에서 필자가 진행하는 주제 선택 수업을 ‘미더덕’이라고 이를 불었다. ‘Me the 德(德), 나 자신이 곧 덕 그 자체’라는 뜻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도덕 수업의 모든 주제는 인성 교육으로 통한다. 도덕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의 바른 인성의 함양과 내면화를 꾀하기 때문이다. 다만 도덕과에서는 학생을 둘러싼 관계와 가치에 집중하여 점차 그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 ‘가치 관계 확장법’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공동체 및 자연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는 수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필자가 자신, 타인, 사회 및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어떤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바른 인성을 내면화하고자 했는지 수업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바른 인성의 핵심, 도덕적인 삶의 의미

도덕적인 삶은 절제와 인내로 가득 찬 삶일까? 이러한 삶은 윤리학자 칸트의 입장만을 따르는 소견일 것이다. 최근에 각광받는 행복 심리학에서도 알 수 있듯 자신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 하되,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이것에 주목하여 전체 수업을 구상 했다. 본 원고에서는 일상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현명하게 다루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프로젝트 수업과 세계 시민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수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가 담당하는 학년이 중1이라 도덕① 수업만 소개한다.)

### 도덕①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행복한 삶  자아 정체성 찾기 • 나 사용 설명서 만들기 • 나만의 힐링 캠프	평화적 갈등 해결  갈등 해결 프로젝트 • 가정, 학교, 이웃과의 갈등 해결(수업 사례 1)	인간 존중, 인권, 세계 시민  세계 시민 프로젝트 • 인권 사전 제작하기 • 모두를 위한 마을 만들기 (수업 사례 2) • 다문화 맛집 지도 만들기 • 세계 시민 교과서 만들기

## [수업 사례 1]

### 갈등 해결 프로젝트: 타인과의 관계에서 평화적으로 갈등 해결하기

(국어과의 연극, 영어과의 갈등 상황 융합)

우리 학교는 2월 새로운 학년의 집중 연수 기간에 학년 협의회를 열어 수행 평가 기간을 조정하고, 비슷한 주제를 연계한 수업에 대해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갈등'을 주제로 하는 수업의 연계성을 발견했다. 도덕과에서는 가정, 학교, 이웃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수업, 영어과에서는 갈등 상황에서 필요한 조언을 영어로 제안하는 활동, 국어과에서는 이를 연극으로 표현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필자는 도덕과에서 진행한 수업 위주로 안내하고자 한다. 먼저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9도02-01] 현대 한국 사회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고, 좋은 가족 구성원이 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실천 의지를 함양할 수 있다.

[9도02-02] 친구와의 우정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진정한 우정을 맺는 방법에 대해 도덕적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

[9도02-03] 성과 사랑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고, 청소년기의 성 문제를 도덕적 시각에서 평가 하며, 일상생활에서 이성 친구에 대한 예절을 지키는 실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9도02-04] 이웃의 종류를 구분해 보고, 공동체 속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봉사하기 위해 타인의 관점을 채택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 - 수업의 주안점

-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갈등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이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하도록 한다.
-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도록 한다.
- 디지털 학습 프로그램 디벗을 활용하여 다양한 미디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갈등 사례를 찾고, 모둠별 공동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는 수업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기기 활용의 장점 극대화)

01

### 활동 1 가정, 학교, 이웃 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떠올려 보기(패들렛)



### 활동 2 모둠별로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주제 정하기(구글 프레젠테이션 공동 작업)



모둠별 주제 예시 1

모둠별 주제 예시 2

### 활동 3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여 모둠별로 스마트 패드를 활용한 만화 그리기



만화 그리기

네 컷 만화 스토리 완성 작품

#### 활동 4 모둠별로 원인에 따른 갈등 해결 방안 제시하고 투표하기



#### 활동 5 모둠별 발표하기



##### 선생님께 드리는 TIP

- 이 수업은 갈등 해결 방안을 완벽하게 제시하는 것보다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갈등의 주제를 최대한 구체화하여 적을수록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네 컷 만화의 스토리를 한 사람이 그릴 경우 자칫 다른 모둠원은 할 일이 없을 수 있으므로 문제 해결 결과 관련된 자료 찾기, 문제 해결 방안 정리하기 등으로 역할을 미리 세분화하도록 안내합니다.

01

-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해결 방안보다는 단순하게 자신의 생각 위주로 간단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결 방안을 제시한 이후에 실현 가능성에 있는지 모둠원끼리 토의를 거치도록 안내하고, 필요하다면 투표를 하거나 교사가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 디벗을 통해 프레젠테이션 활동에 필요한 기본 양식은 '수정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제시합니다. 다만 모둠별로 필요에 따라 양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면 개성 넘치는 완성작이 나옵니다. 공동 작업이다 보니 타인의 작업을 망치지 않도록 충분히 강조해야 합니다.
- 디벗이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경우 반드시 기기를 숙달하도록 사전 연습을 충분히 해야 본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수업 사례 2]

**세계 시민 프로젝트: 인간 존엄성, 인권 이해를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도덕에서는 가치 관계 확장법에 따라 자신을 탐색하고, 타인과의 관계, 나아가 사회와 공동체와의 관계로 탐색을 확장해야 한다. 그래서 단원을 학습할 때에는 자신의 주변에서 만나는 흔한 경험을 넘어서 공정과 정의, 인권, 세계 시민 등 보다 넓은 범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이 주제를 다룰 때에는 단원별로 인권, 다문화, 세계 시민 등의 주제를 충실히 다루는 것에 급급했는데 아이들은 배운 내용이 자신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공감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음 해 여름방학 중 교과서와 여러 자료를 찾아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써리를 했고, 일관된 주제로 퍼즐을 맞추며 구슬을 끼듯이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재구성했다.

필자가 찾은 주제는 '세계 시민'이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탐색한 나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발휘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깨달음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설계했다.

이러한 세계 시민 프로젝트 수업의 중심이 되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프로젝트 수업은 2021년 우리 학교 특수 학급 교사와 2월부터 융합 연구팀을 구성하여 진행했던 '모두를 위한 디자인' 수업을 보다 발전 및 변형시킨 것이다. 그 차이점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구분	2021학년도 모두를 위한 디자인	2022학년도 모두를 위한 마을 만들기
수업 목적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발명품, 시설 등을 고안하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있는 마을 만들기
수업 방법	특수 교사가 유니버설 디자인(공용화 설계) 수업 → 모둠별 특정 대상자 선정(장애인, 노약자, 다문화 등) → 자료 조사 → 제도, 시설 만들기 → 발표 → 모둠별 상호 피드 백 후 수정	모둠별로 여러 사회적 약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다양한 시설 조사 → 1인 1장소 담당 → 하나의 마을 완성 → 마을 홍보물 만들기 → 발표
발표 및 평가	월드 카페 활동으로 마스터와 손님이 돌아 가며 소개하고 진행	마을 홍보물을 만들고 홍보 활동

관련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9도03-01] 인간 존엄성과 인권, 양성평등이 보편적 가치임을 도덕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통제하여 보편적 관점에서 모든 인간을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다.

[9도03-02] 보편 규범과 문화 다양성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차이와 다른 존중하는 등 다양성을 긍정하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

[9도03-03] 세계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도덕 문제를 인식하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참여적 태도를 가지는 등 세계 시민 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 - 수업의 주안점:

- 이 활동은 인간 존중, 인권의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 이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겪는 차별을 이해하면서도 시혜적 태도가 아닌 우리 모두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한다.

01

## 활동 1 사회적 약자의 종류, 약자의 개념 알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과서적 정의 외에 구체적인 사례를 찾고, 학생 자신이 이해한 다른 용어로 표현해 봄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겪는 어려움을 느끼도록 한다. 이러한 어려움과 불편함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시설과 제도를 개선하는 원천이 된다. 이에 대해 모둠원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리하도록 한다.

사회적 약자란 어떤 사람 그대를 찾으시나요?  
1. 사회적 약자는 기본적인 생활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2. 사회적 약자는 물리적 환경을 이용해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활동적인  
- 사회적 약자로 인해 어려움 노동과 생활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겪기는 경험으로 소중한 경험입니다.  
3. 물리적 환경을 이용해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물리적 환경은 그 사람의 활동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물리적 환경은 그 사람의 활동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물리적 환경은 그 사람의 활동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4. 물리적 환경에 필요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물리적 환경은 그 사람의 활동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5. 물리적 환경에 필요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물리적 환경은 그 사람의 활동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6. 물리적 환경에 필요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물리적 환경은 그 사람의 활동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7. 물리적 환경에 필요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물리적 환경은 그 사람의 활동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8. 물리적 환경에 필요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물리적 환경은 그 사람의 활동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복습간단1  
신체적**

**복습간단2  
문화적**

**복습간단3  
정신적**

사회적 약자란 어떤 사람 그대를 찾으시나요?  
1. 물리적 환경을 이용해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2. 물리적 환경을 이용해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물리적 환경은 그 사람의 활동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3. 물리적 환경을 이용해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물리적 환경은 그 사람의 활동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4. 물리적 환경을 이용해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물리적 환경은 그 사람의 활동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5. 물리적 환경을 이용해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물리적 환경은 그 사람의 활동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 활동 2 개인 아이디어 노트 작성하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뒤, 모둠원과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나눈다. 특히 현재 사용 중인 물건, 시설, 제도 등에 대해 개선할 점을 아이디어 노트에 잘 정리하고 1인 1 요소 / 구역을 담당하여 구체적인 설계 활동으로 진행한다. 예컨대 지하철, 공원 등의 장소에서 지금 현재 사회적 약자가 불편함을 느낄 만한 요소를 찾아 개선하도록 한다.

1. 사회적 약자란 무엇인지 정리해봅니다.	2. 내용
사회적 약자란	
사회적 약자란 흔한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는 흔한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는 흔한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는 흔한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는 흔한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는 흔한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는 흔한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는 흔한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는 흔한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는 흔한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는 흔한 경우에는	

3. 물건들하고 아이디어 나누기	4. 내용
우리 마을 생활	제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는 흔한 경지
우리 마을 생활	제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는 흔한 경지
우리 마을 생활	제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는 흔한 경지
우리 마을 생활	제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는 흔한 경지
우리 마을 생활	제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는 흔한 경지
우리 마을 생활	제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는 흔한 경지
우리 마을 생활	제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는 흔한 경지
우리 마을 생활	제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는 흔한 경지
우리 마을 생활	제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는 흔한 경지

### 활동 3 마을 개선 활동(1인 1장소 담당)

모둠원 각자가 맡은 장소, 제도 등에 대해서 구체화하도록 충분히 토의한 뒤, 설계도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 활동 4 마을 개선 활동 소개 자료 및 마을 홍보물 만들기

모둠원 각자가 만든 설계도를 프레젠테이션에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고(디벗 활용), 모둠별로 홍보를 위해 만든 포스터, 동영상 등의 자료를 함께 발표하도록 한다. 홍보를 위한 방식은 모둠에서 각자 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 다양한 홍보 자료가 결과물로 나온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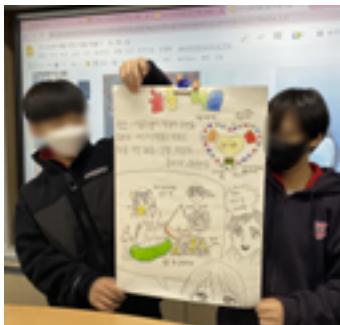
마을 개선 활동 1



마을 개선 활동 2



마을 만들기 설계도 발표



마을 만들기 홍보물 소개

### 활동 5 발표 후 성찰지 작성

길고 긴 프로젝트 활동 이후에 시간에 쫓겨 다급하게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워낙 긴 호흡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주어진 활동을 완성하기에 바쁘고, 활동의 의의와 목적은 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반드시 짧게나마 아이들이 이 활동에서 중요하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작성하고 돌아보게 해야 한다.

#### 1. 모두를 위한 디자인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 ▶ 새롭게 알게 된 점

다양한 가정, 사회에서 윤리 고민하는거 같았습니다.

##### ▶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것

중학교 때였던가, 또래하고 서로 흥미있고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게 재밌었디.

##### ▶ 이 수업이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생각이 날까요?

나중에 내가 만족하던 다양한 경험을, 자리에 앉았다면 시원하게 놀고 싶습니다.

다양한 경험 수준으로 같은으로 생각하는 게 있겠지.

#### 선생님께 드리는 TIP

- 사회적 약자에 대해 교과서에서 제시한 예시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모둠원 간 토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회적 약자는 우리가 ‘배려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대상’으로서 이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서로가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 학생들의 아이디어 가운데 이미 개발되어 실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으므로 자료를 검색하고 검증하도록 합니다. 이미 나온 아이디어를 조금 변형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므로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은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실제 ‘유니버설 디자인’의 사례를 영상으로 보여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인성 교육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도덕 수업을 하면서 도덕 교육의 목표와 바른 인성의 습득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다. 도덕은 ‘여러 덕목을 습득하게 하는 것?’, ‘아는 것과 행동의 일치?’, ‘도덕적 지식의 내면화?’ 등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린 문장들로 수업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서두에서 밝혔듯 인성 교육은 자신의 행복을 찾고 타인과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고 타인과 교류하는 지평을 넓히는 수업을 목표로 삼고자 했다. 또한 핵심 덕목을 영속적으로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연결하여 구성하고, 배움 그 자체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야겠다는 다소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매해 비슷한 주제로 수업을 하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자극과 환경을 아이들에게 제시하고 있는지 점검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 무엇을 배웠냐고 묻는다면?

도수업을 위한 미더덕은? 도수업을 위한 지적인 수와 고백의 낮은 시간 도덕관련질문에게 하고 싶은 본체의 말을 표현 수준에 맞아진 교과학습합니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행복 행운은 도덕시간 양들아유라서 학사집단수준
그렇다.	자기나 도학수업이 종문에 활약합니다.
매우 그렇다.	행우 그렇다
그렇다.	마음처럼 계자 우습울마땅 좋겠다
그렇다.	수업 자체가 좋았다
그렇다.	재밌었습니다
그렇다.	행동과 학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방식이었으면 좋겠다 전에는 물질이면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활용계획
그렇다.	2학기 가을과 겨울의 교육활동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렇다.	개정하였습니다
매우 그렇다.	사랑합니다
그렇다.	수업을 즐겁게 즐기려고 했습니다
보통이다.	분입니다
보통이다.	하는 걸 좋아합니다! 개인! 그냥 출장하면 좋겠어요! 그냥 개인의 희사는 수업이 재밌어요
보통이다.	한학년이라서 친구들이랑 함께하기 어려웠는데 모둠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친구한 학습내용에 대해 얘기해보니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렇다.	다 재미있는 활동으로 하주세요
보통이다.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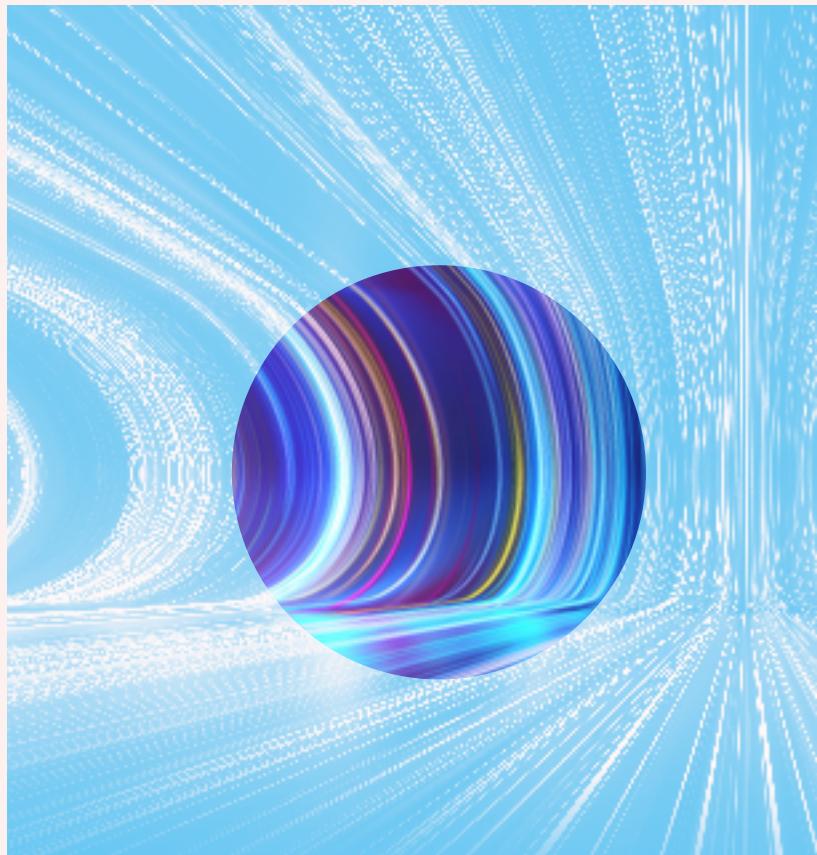
프로젝트 수업을 마무리하며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니 무엇을 배웠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아이조차 ‘재미있다’, ‘모둠 활동이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 있었다.’라는 답변을 했다. 도덕 과의 인성 교육은 지식의 습득으로만 끝나서는 의미가 없다. 머릿속에 도덕적 지식을 심어 주고 논리적 사고력을 발휘하는 것 이상으로 학생들이 수업 장면에서 느낀 감정이 살아 움직이며 이것이 동기가 되어 실천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N**

## 02

# 모두의 빛으로 마음을 채우는 미술 수업

김연수

서울 상계제일중학교 미술 교사이다. 학생들의 작품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상시적으로 전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흥미와 활동이 중심이 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수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전국미술교과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 온라인 미술 수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학급 활동과 관련한 각종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몽땅미술생 연수' 채널에 업로드 중이다.



## 학년 말 유의미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수업을 고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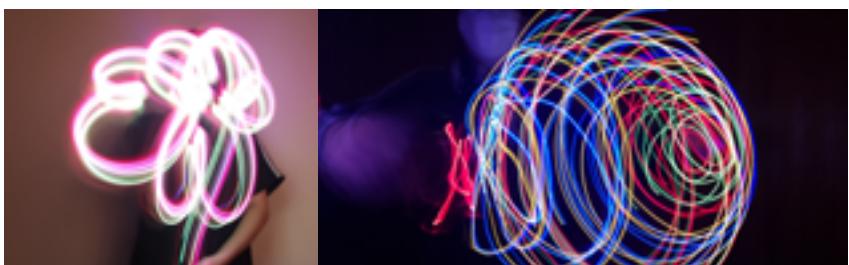
2022년 처음으로 학년 보직교사를 맡아 1학년 전체 학생들이 참여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학년 말 수업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6 ~ 2017년도에 진행했던 ‘라이트 아트’ 수업을 다시 한번 꺼내서 공연 형식으로 제대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예년과 다른 부분은 철저히 공연을 목표로 계획하고, 학년 전체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연을 감상하며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수업이라는 것이었다.

어쩌면 전국의 많은 미술 교사들이 라이트 아트 수업을 시도해 보았거나 해 본 경험이 이미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처음부터 공연을 목표로 한 수업 과정과 결과는 어떠했는지,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협력을 통한 인성 교육이 어떻게 그려질 수 있었는지 그 수업 사례를 함께 나눠 보고자 한다.

### 라이트 아트

라이트 아트란 빛의 효과를 극적으로 살려 새로운 시각적인 이미지를 창출해 내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작품의 총칭으로 전구, 형광등, 네온등, 레이저 광선 등의 빛을 이용한 예술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주로 휴대폰의 불빛으로 드로잉을 하고, 셔터 속도를 조정하여 이 모습을 촬영하는 ‘라이트 드로잉’을 한다.

본 수업 사례는 자전거 랜턴을 사용하여 직접 빛을 흔들고, 훈색하고, 의도된 모양을 비추기도 하는 등 빛의 움직임을 통해 실시간으로 작품을 구현하고 감상할 수 있는 라이트 아트이다. 2015년경 전국미술교과모임의 직무 연수 중 인천에서 근무하는 김경희 선생님의 수업 사례를 접하고, 변형 및 응용하여 진행한 수업이다.



## 라이트 아트 공연을 통해 만나는 협력의 과정과 특기 드러내기(총 12차시)

02

활동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이트 아트 공연을 계획하고 연습하여 완성한 후 공연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협력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한다.</li> <li>· 본인이 가진 특기를 뽐내며 자아 존중감을 함양하고, 학년 전체 친구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하는 시간을 갖는다.</li> <li>· 공연을 감상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년 전체의 학생들이 서로 화합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갖는다.</li> </ul>
준비물	자전거 랜턴, 셀로판지, 고무줄, 충전기, 충전지, 암막 커튼, 촬영(녹화)용 카메라 등
수업 장소	미술실, 소강당, 시청각실과 같은 어둠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
수업 방법 및 형태	모둠 협력 수업(10명 내외)
융합 가능 교과	과학(빛 단원), 체육(퍼포먼스 및 체조 등), 음악(리듬 및 운율 등)
활동 과정 및 활동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빛에 대한 아름다운 경험 나누기, 랜턴을 이용한 빛의 표현 및 체험, 라이트 아트 작품 공연을 위한 역할 분담 및 노래 선곡(1~2차시)</li> <li>② 라이트 아트 작품 공연에 필요한 종이 패널 제작, 퍼포먼스 계획 및 세부 역할 분담(3~4차시)</li> <li>③ 라이트 아트 작품 공연 연습(5~10차시)</li> <li>④ 라이트 아트 작품 공연 최종 연습 및 학급 내 평가(11~12차시)</li> <li>⑤ 라이트 아트 작품 전체 공연</li> </ol>

### [수업 준비]

자전거 랜턴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2016년경 구입한 랜턴은 AAA 건전지 세 개를 필요로 하는 제품이고, 2022년에 구입한 LED 랜턴은 충전지 한 개로 재충전이 가능한 제품이다. 직접 사용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각각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다.

구분	장점	단점
배터리 랜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li> <li>· 배터리 수명이 비교적 오래가는 편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터리 구입 금액이 상당하다.</li> <li>· 무게가 조금 무거운 편이다.</li> </ul>
충전식 랜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다.</li> <li>· 충전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다.</li> <li>· 무게가 가벼운 편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 후 충전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li> <li>· 충전기와 멀티탭 등의 부자재 구입이 필수다.</li> </ul>

구입한 랜턴의 앞쪽 부분에 셀로판지(적색, 녹색, 파란색)를 대고 고무줄로 힘껏 묶어서 RGB의 색상을 만들면 라이트 아트 수업에 필요한 재료 준비는 끝난다. 필요에 따라 보라색과 주황색 셀로판지를 사용해도 좋으며, 셀로판지는 두 번 이상을 접어 겹친 후 빛을 켜야 효과적이다. 셀로판지를 한 번 정도 접고 빛을 켜면 빨간색은 분홍색 느낌, 파란색은 하늘색 느낌의 빛이 연출되기도 한다.



### [수업 장소]

빛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장소가 적합하다. 필요에 따라 암막 커튼을 구입하여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미세한 빛까지 다 막아 어두운 환경을 조성한다.

열 명 정도 인원을 두 모둠으로 나누어 그 모둠이 서로 방해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미술실과 소강당(시청각실)을 동시에 사용했다. 사전에 학교 일정을 확인하고 특별실(소강당) 사용 예약 및 허락을 구한 상태에서 수업을 시작했다.

일반 교실에서는 빛을 차단하는 커튼 혹은 슬라이드를 치고, 나머지 창문 위에 두꺼운 흑색 색상지를 창문에 부착해 두어도 빛을 차단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미리 빛을 차단할 수 있는 암막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찾아 환경을 조성한 뒤 수업을 진행해야 효과적이다.

### [수업 1step] 1~2차시\_빛의 체험과 미니 미션

빛과 관련하여 가장 인상적이었거나 아름다웠던 장면을 이야기하며 수업을 시작했다. 수업에 관한 안내와 함께 연말에 전체 학년 학생들이 함께하는 라이트 아트 공연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로부터 동기를 유발하고, 약간의 경쟁심도 조성했다. 물론 행사 당일 이 경쟁심은 화합과 환호로 완성되었지만 학급별, 그리고 서로 간 작품에 대한 호기심을 끌어내기 위한 사전 장치였다.

랜턴의 작동법과 유의점 등을 먼저 안내한 후 학생들에게 랜턴을 한 개씩 배부했다. 절대 먼저 전원을 켜지 않도록 당부한 후 바로 실내의 모든 불을 소등했다. 소강당의 모든 빛이 차단되어 새카맣게 어두운 환경이 조성되자 아이들은 놀라움과 호기심이 발동되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추어 랜턴을 일제히 천장으로 비추자 아이들은 빛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탄성을 자아냈다.

02



이 상태에서 빛을 흔들고 깜박이며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노래 한 곡을 틀어 주었다. 노래가 재생되는 도중 학생 몇 명을 앞으로 불러내어 그 학생을 향해 빛을 비추도록 했다. 온몸으로 빛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이때 절대로 친구들의 눈에는 직접적으로 빛을 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했다.

#### 학생들에게 안내한 유의 사항 중 일부

- 절대로 눈을 향해 랜턴을 비추지 않습니다.(강조 사항)  
빛이 세기 때문에 자칫하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꼭 전원을 끕니다. OFF로 고정해 두세요.
- 랜턴을 던지거나 파손하지 않습니다.
- 눈의 피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분 수행 - 5분 휴식 - 20분 수행 - 5분 휴식

학생들은 과학 시간에 학습한 빛의 가산혼합을 실제로 수행하며 눈으로 직접 혼합의 과정을 확인하면서 신기해했다. 특히 빨강색과 녹색이 섞여 노란색이 만들어질 때와 RGB의 모든 색이 합쳐져 흰색이 나오는 순간 그 즐거움이 절정에 달했다.

랜턴으로 하는 작은 미션들을 제시했다. 이 미션들은 처음으로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며 작은 무언가를 함께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미션은 아래와 같으며 난이도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 제시했다. 간단한 미션이지만 처음 맞춰 보는 순간이기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움직이는 파란 물결, 움직이는 빨간 번개, 녹색 스마일, 하얀 공,  
파란 바닷속 깜빡이는 빨간 불빛, 반짝이는 무지개 빛 은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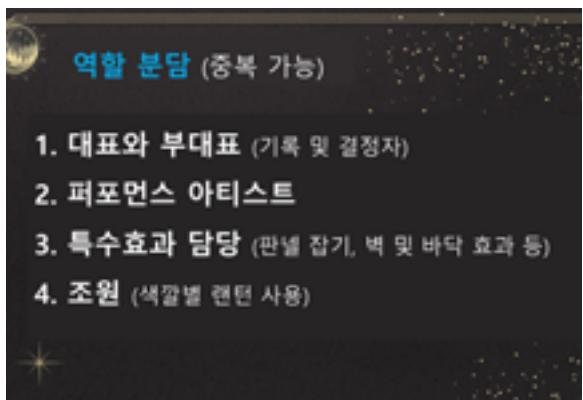
이후 모둠별로 미션을 제시했다. 시간은 15~20분 정도를 부여했으며 모둠 미션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흩어짐과 모임, 느림과 빠름,  
정지와 움직임, 소규모와 대규모

위 모둠 미션의 과정과 결과물은 그대로 라이트 아트 작품에서도 사용하고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학생들이 쉽게 표현 방법을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두 모둠 간의 미션 결과를 서로 확인하며 새로운 표현 방법들을 함께 공유하고, 변형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후에 사용한 랜턴을 반납한 후, 라이트 아트 공연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시작했다. 준비물은 랜턴, LED 와이어, 종이 패널임을 안내했고, 이중 LED 와이어는 필요한 모둠에게만 지금했다. 모둠원 각자가 1인 1역할은 반드시 하도록 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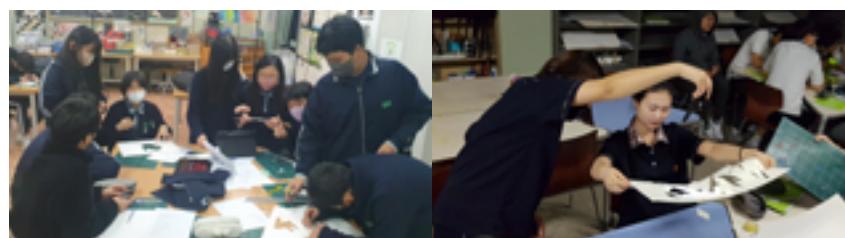
이후 라이트 아트 공연의 필수 요소인 음악을 선곡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당시 시간이 촉박하여 미리 3분 내외의 대중가요 인기곡 중 비트가 빠른 노래를 선별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했으며 모둠 대표가 제비뽑기로 골랐다. 곡이 선정된 후 1차 모둠별 회의를 하도록 한 후 수업을 종료했다. 다음 차시 수업 때에는 곡과 관련된 종이 패널 제작이 진행됨을 예고했다.

음악 선곡 (제비뽑기)	
Baby - 저스틴 비버	Tears - 소진희
뱅뱅뱅 - 빅뱅	빨간 맷 - 레드벨벳
예쁘다 - 세븐틴	봄바야 - 블랙핑크
나야 나 - 프로듀스 101	상상더하기 - 라붐
불타오르네 - BTS	LOVE DIVE - 아이브
That That - 라이	TOMBOY - (여자)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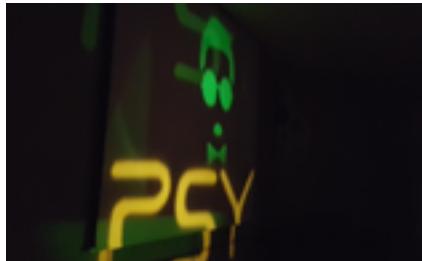
#### [수업 2step] 3~4차시\_조형과 댄스의 결합, 나의 특기가 모둠의 작품 속으로

지난 시간에 선정한 곡의 가사가 적힌 종이를 학생들에게 배부하며 수업을 시작했다. 종이에 구멍을 뚫어 빛을 투과시켜 모양이 있는 빛을 그릴 수 있는 ‘종이 패널’을 제작했다. 4절과 8절 켄트지를 준비하여 학생들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켄트지는 두께가 있는 220g이었다. 켄트지가 얕을 경우에는 종이를 위로 들었을 때 휘거나 쉽게 찢어진다. 220g 켄트지는 학생들이 손으로 들었을 때 휘어짐의 정도가 작아서 반듯한 상태로 종이 구멍 안으로 빛을 투과시킬 수 있었다.

음악의 느낌과 어울리거나, 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선과 구멍 등을 먼저 제작하도록 했다. 예년에는 구상적인 형태로 음악의 가사에 집중하도록 하여 해당 가사가 나오는 부분에만 종이 패널을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비구상적인 형태로 음악의 느낌을 표현할 경우에는 노래의 어느 마디든 종이 패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런 지도 방법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가수와 관련이 있는 로고 혹은 글자 모양을 제작하는 것을 선호했다.



모둠끼리 종이 패널을 함께 제작하면서 노래의 부분 중 퍼포먼스 혹은 댄스를 하고자 하는 부분도 함께 토의하며 정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평소 댄스를 좋아하거나 끼가 있는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본인이 노래 일부 부분을 맡아서 하겠다고 자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종이 조형 작업에 강점을 보이는 학생, 댄스 및 퍼포먼스에 특기를 가진 학생들을 라이트 아트 작품 및 공연 안에 모두 참여시킴으로써 함께 빛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하게 했다.



구상적인 형태의 종이 패널



비구상적인 형태의 종이 패널

### [수업 3step] 5~6차시\_첫 시작, 자연스러운 불협화음과 불편함

본격적으로 라이트 아트 작품 연습을 시작했다. 전체 프로그램을 안내한 후 미술과 소강당에서 모둠별로 연습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지난 시간에 선정한 곡의 가사지에 간략하게 표현 방법과 역할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첫 시작의 발판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표현 조건과 몇 가지 팁을 안내하고 연습에 들어갔다.

표현 조건	TI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둠 미션(흩어짐과 모임, 느림과 빠름, 정지와 움직임, 소규모와 대규모) 중 두 개 이상 표현할 것</li> <li>종이 패널을 반드시 두 번 이상 사용할 것</li> <li>한 개의 렌턴으로 연출하는 장면이 있을 것</li> <li>퍼포먼스가 한 번 이상 등장할 것</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렌턴의 색깔별로 모여 앉아서 연습하기</li> <li>손으로 렌즈 부분을 가리고 펼치면 빠르게 암전 효과를 연출 할 수 있음</li> <li>그림자 표현을 활용하기(손, 물체 등)</li> <li>눕거나 돌아다니며 표현하기</li> <li>벽에 렌턴을 붙여서 빛을 표현하거나 형광등의 반사판을 활용하기</li> <li>표현 과정을 잊지 않도록 중간마다 영상으로 기록하기</li> </ol>

02



벽에 랜턴을 붙여 표현하기



그림자 표현하기



종이 패널을 사용하여 표현하기



누워서 표현하기

아이들에게 첫 시작의 순간은 너무나 아득하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의 연속이다. 이때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결국은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사의 믿음과 격려가 필요하다. 시작 후 20분 이상이 지났음에도 도무지 진행이 되지 않는 모둠에게는 첫 시간의 모둠 미션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여 그 장면을 노래의 어느 부분에 적용하면 좋을지 함께 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면 된다.

모둠 내 소그룹을 나누어 진행하는 모둠도 있고, 모든 진행을 함께하는 모둠도 있다. 무엇이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지 구분이 필요 없다. 결국은 하나의 노래 안에서 하나의 작품 표현으로 완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업 말미에는 두 모둠이 함께 모여 당일 연습한 부분만큼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의 표현 방법을 확인하며 참고하고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며 약간의 자극과 경쟁심을 부추길 수 있는 시간이다. 연습하여 표현한 작품 시간이 매우 짧아도 괜찮다. 짧은 만큼 더 결속하여 무언가를 함께 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교사는 첫 시간, 아이들에게 생길 수 밖에 없는 불협화음과 불편한 상태를 관찰하며 도움을 주거나 필요한 순간에만 적절히 개입하여 격려하면 된다.

### [수업 4step] 7~10차시\_연습 또 연습, 점점 합을 맞추어 가다

지난 차시에 이어서 작품 표현의 연습이 원활하게 되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의 시작과 함께 노래에 해당하는 대략 얼마의 시간까지 표현해 보자는 목표를 설정한다. (예: 1분, 1분 30초) 노래의 1절과 2절은 거의 흡사한 가락과 비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1절까지만 완성하면 대략 작품의 70~80%는 만들어진다.

지난주에 촬영한 영상을 함께 보며 기억을 상기시켜 자주 실수한 부분을 짚어 주고 표현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효과적이다. 이때부터는 학생들의 합이 맞기 시작하여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이 순간 모둠 내 학생들끼리 서로 환호하며 표현에 자신감을 갖는다. 교사는 함께 감탄하고, 완성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주로 하면 된다. 수업의 말미에는 당일까지 연습한 진행 상황을 다른 모둠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얼마나 진행되고 발전했는지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

### [수업 5step] 11~12차시\_최종 연습과 학급 내 발표 및 공연

마지막으로 연습하는 날임과 동시에 수업 종료 20분 전 최종 평가 및 발표를 하며 라이트 아트 수업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새로운 것을 계속 시도하기보다는 그동안 연습한 과정을 맞춰 보며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연습의 시간을 갖는다. 정말 아쉽거나 허전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만 수정하며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수업 종료 20분 전,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소강당으로 모이게 한 후 라이트 아트 작품을 발표 및 평가했다. 그동안 매주 확인한 활동이었으나 최종 발표인 만큼 아이들은 다시 긴장하고,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다. 이때 해당 학급 담임 선생님의 시간표를 확인하고, 참관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참석을 권한다면 아이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발표의 순간이 될 것이다. 라이트 아트의 작품 특징을 고려하여 작품은 촬영 및 녹화한 영상으로 평가했다. 각 모둠 간 두 번의 발표 기회를 가지며 두 번 중 더 잘한 것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시작의 순간 노래가 훌려나오면 아이들 모두 숨죽여 작품을 감상한다. 그러다 멋있거나 합이 잘 맞는 장면이 나올 때는 서로 감탄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 준다.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는 아이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가득하다. 특히 종이 패널의 제작 형태가 정교하거나 화려하여 빛으로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면 감탄의 소리는 더욱 커진다. 퍼포먼스 혹은 댄스가 나오는 순간에는 모두의 웃음소리와 환호로 가득 차는 열정의 순간을 지켜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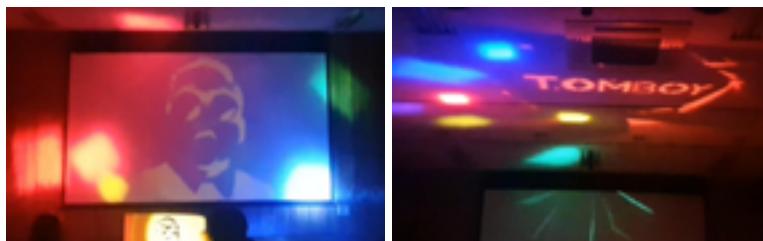
함께 수고한 자신과 학급 친구들을 위해 박수를 치며 수업을 정리했다. 그리고 1학년 전체 행사 때에 다른 반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곧 찾아올 것이라는 새로운 기대감을 전달했다. 1학년 전체 행사 공연 무대에 한 번 더 올라 공연을 할 모둠은 아래의 평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02

독창적인 표현 연출 방법의 유무, 노래의 리듬 및 가사와 어울리는  
표현력, 모둠원들의 참여와 협력 정도, 표현 공간(장소)의 활용력



라이트 아트 작품 공연 중 학생들의 퍼포먼스



정교한 종이 패널 제작으로 구성한 장면 연출

### [수업 Final step] 1학년 라이트 아트 전체 콘서트

종업식 일주일 정도를 남겨 둔 시기에 1학년 콘서트 행사 일정을 잡았다. 교과 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덜어 주고, 학년 말에 학년 전체가 함께 모여 콘서트를 즐기는 시간으로 의도했다. 담임 교사를 포함하여 해당 학급 교과 교사들도 함께 참관하여 즐기는 행사가 되도록 했다.

학생들이 라이트 아트 작품에 사용한 종이 패널과 각종 재료는 사전에 학급별, 공연 순서별로 준비했으며 2교시 행사 시작 전 1교시에는 공연에 참여하는 학급 학생들을 불러 모아 아주 짧게 리허설을 하도록 했다(3분×8개 모둠). 한 교시 당 서너 개 모둠의 공연을 진행했으며, 총 2교시로 나누어 콘서트를 진행했다. 준비 시간 확보와 랜턴 충전 등의 이유로 나눈 진행이었으나 남는 시간에는 퀴즈 및 학생들의 장기자랑으로 채울 수 있었다.



소강당에 1학년 전체 학급 학생들이 모여 착석한 후 행사의 취지 및 목적과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바로 공연을 시작했다.

장내에 불이 모두 꺼지면 아이들의 박수와 함성이 나오기 시작한다. 첫 공연 팀의 노래가 흘러 나오고 랜턴의 불빛이 천장과 벽면을 수놓으며 라이트 아트 공연과 행사는 비로소 축제가 된다. 학급 간의 경쟁은 사라지고 전교생 모두가 불빛과 음악에 맞추어 즐기고 화합하는 순간이다.

무대를 마치고 내려오는 아이들의 표정은 더욱 상기되어 있으며 무언가를 크게 해낸 것마냥 만족에 차 있다. 그렇게 모두의 빛과 표현의 무대로 채운 ‘우리’가 되는 순간이었다.

사실 모둠원끼리 더욱 서로를 격려하고 의욕을 불태우는 모습과 공연을 마치고 내려오는 학생들의 흡족해하는 감동 충만한 표정은 지난 2016 ~ 2017년도 라이트 아트 수업 때에도 경험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점심시간에 소강당에서 전교생을 선착순으로 초대하여 공연을 했다.

02

그러나 이번 수업과 콘서트는 동일 학년의 전교생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공연을 즐김으로써 더욱 감동스럽고 벅찬 순간이었다. 아무래도 같은 학년의 모든 친구들이 함께하는 공연이기에 그 호응과 관심, 환호는 더욱 컸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조형 작업, 퍼포먼스, 모둠을 이끄는 리더십, 표현을 기록하는 능력, 시간을 관리하는 역량 등 라이트 아트 공연은 학생 개인별 특기가 모여서 하나의 총체적인 작품이 된다. 또한 학년 모두가 즐기는 공연 무대가 되어 ‘함께함’의 기억으로 남는 시간 이었다고 감히 소개하고 싶다.



### 수업 활동 소감

매우 뛰어나거나 우수한 수업 사례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동일 학년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즐기고 감탄할 수 있으며, 서로 공감하는 장(場)을 만들어 주는 것은 학교 혹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경험 중 하나이다.

그 역할을 우리 교사들이 하길 바라며 이 수업 사례를 추천한다. 공연을 마치고 스스로를 대견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분명 이 수업의 의미를 깊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개별 활동에서 시작하여 모둠 활동으로, 학생 개개인의 특기들이 모여 하나의 모둠 전체 작품으로, 학급 내 작품들이 모여 학년 전체의 공연과 축제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은 매우 유의미한 인성 교육 실천 사례가 될 것이다. 가슴 깊은 곳에서 벽차오르는 그 무언가를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느끼고 공유해 보고 싶다. N



\*2022년 상원중학교 라이트 아트 작품 영상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AT THAT' 영상



'LOVE DIVE' 영상



'뱅뱅뱅' 영상



'TOM BOY' 영상



\* 김연수 선생님의 다양한 수업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푸른 나무가 되고 싶은  
김선생의 미술 수업 이야기  
[blog.naver.com/sesys](http://blog.naver.com/sesys)



몽땅미술샘연수t

[youtube.com/@user-sd9yr4dy4d](https://youtube.com/@user-sd9yr4dy4d)



## 수업에 바로 활용하는 인성 교육 누리집

글\_ 편집실



'2022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 설문에서, 국민들은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 영역으로 '인성 교육'을 1순위로 뽑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인성 교육,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기 좋은 인성 교육 누리집을 모았습니다.

## 01

미리네  
miline.or.kr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miline.or.kr.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학부-초등', '중등-고등', '연구자료', '참고자료', and '인성교육'. Below the navigation bar is a decorative header with stars and the text '인성교육'.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프로그램/지도자료' (Programs/Guidelines). A table below lists five programs, each with a title, author, date, views, and a download link.

번호	제목	책임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
029	중학교 자유학기 프로그램 '인성교육으로 자유학기의 날개달기'	전미나	2023-03-27	441	<a href="#">다운로드</a>
028	출판: 함께해요 인성교육(초등학교)	전미나	2023-03-27	857	<a href="#">다운로드</a>
027	민주적 학교운영 실무이 - EBOOK	전미나	2023-03-13	262	<a href="#">다운로드</a>
026	출판: 함께해요 인성교육 출판 안내문집	전미나	2023-03-22	557	<a href="#">다운로드</a>
025	정한 인생을 가리는 아름다움으로 행복한 학부모, 지도서	전미나	2023-01-03	863	<a href="#">다운로드</a>

교육부의 미디어 교육 통합지원포털 ‘미리네’는 미디어 교육 자료와 최신 정보 공유 등 학교 미디어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했던 (구)인성교육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인성 교육 관련 정책 연구 및 인성 교육 프로그램 워크북과 지도서, 인성 교육 활용 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인성 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구 조사를 토대로 프로그램 개발부터 활용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년·과목 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하여 수업에 바로 적용하기 좋습니다. 인성 교육 지도 자료와 결과 보고서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미리네 인성 교육 프로그램 지도 자료

## 0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edu.humanrights.go.kr](http://edu.humanrights.go.kr)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fo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교육안내' (Education Guide), '사이언스교육' (Science Education), '인권교육' (Human Rights Education), '전대·자료실' (Archive), and 'LBS 강의실' (LBS Lecture Room). Below the navigation bar, the title '교재·교육자료실' (Teaching Materials) is displayed. Underneath this, there is a breadcrumb navigation showing '전대·자료실 > 글래·글피자료실'. A table lists various teaching materials, each with a thumbnail, title, file type, and download link.

번호	제목	유형	파일	다운로드
23	한국인권교육 '박생원'	한국교육동영상	MP4, JPG	가능
22	한국인권교육 '남호과현'	한국교육동영상	MP4, JPG	가능
21	연금인권 사람적 학구노은 강의판	한국교육동영상	MP4, JPG	가능
20	여름 청소년 한권 빌밀의 역사	한국교육동영상	MP4, JPG	가능
19	기업 친환경 한권 풀이 교재보조	한국교육동영상	MP4, JPG	가능
18	한국인권교육 '학원원'	한국교육동영상	PNG, MP4	가능

모든 사람의 인권은 나의 인권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 주는 인권 교육은 인성 교육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는 교육 현장에서의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무료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교재·교육자료실에서 교육 영상 보조자료와 프로그램 자료집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 교육 안내서, 혐오차별 대응 워크숍 프로그램 교안, 인권 영화 학습지도안 등 인권 교육 수업 모델 및 자료를 제공합니다. 학교 인권 교육을 체계화·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한국인권 교육포럼의 자료집도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교육 자료

## 03

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  
crezone.net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CreZone website.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and navigation links for '교과자료' (Curriculum Materials), '위탁기관 검색' (Search by Entrusted Organization), '크레존 이정표' (CreZone Guidepost), and '교과별 이정표' (Guidepost by Subject). Below the header, there are tabs for '창의교육' (Creative Education) and '창의적 체험활동'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image of a colorful book titled '창고-창작-창작 창의·인성교육 수업모델' (Storage-Creation-Creation Creative Education Lesson Model). Below the image, there is descriptive text about the lesson model, including its purpose, target audience, and implementation period.

창의 인성 교육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크레존’은 다양한 창의 체험 정보와 창의 인성 교육 전문 자료를 접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 및 평가 모델, 인성 교육 지도 자료 프로그램, 혁신적인 교원 연수 등을 제공합니다. 초·중·고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활동지와 지도 자료가 개발되어 있어 교과 수업 시간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크레존 이야기’ 메뉴에서는 블로그, 뉴스레터, 카드뉴스를 통해 국내외 창의·인성 교육 동향과 교수학습법, 진로 가이드, 최신 교육 트렌드 등 다양한 자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크레존 인성 교육 지도 자료 프로그램

## 04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stopbullying.re.kr

The screenshot shows the '어울림 프로그램' section of the website. At the top, there's a banner with two smiling students in school uniforms. Below the banner, the text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is displayed. On the left, there's a sidebar with navigation links: '어울림 프로그램 소개 및 검색', '어울림 체계도 및 DB', '학령률 어울림 프로그램', and a dropdown menu for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중학교' and features tabs for '초등 3~2학년', '초등 3~4학년', '초등 5~6학년', '중학교' (which is highlighted in blue), and '고등학교'. Below these tabs, there's a large button labeled 'OPEN' with icons for download and print. To the right of the button, there's a note in Korean: '본 자료들은 "온정누리마을 폭력방지" 동체로서·생명의 아름다움과 함께 미래 미안을 수 있습니다.' At the bottom right, there's a link: '중점사업인증서(평생학습 디딤돌)'.

학교 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학교에서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의 학교 폭력 예방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대상별 역량 또는 문제 유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예방 교육을 지원합니다. 학생과 교사, 더 나아가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보다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자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어울림 프로그램 자료

## 05

인성인문학교육센터

[school.gyo6.net/kbinsung](http://school.gyo6.net/kbinsung)

번호	분류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분기판한: 교사, 학교관계자 / 평가관한: 전체 / 게시글 보존기간: 영구				
56	비단	[2022년_12월_비단] 산한 영향력 가게	경**	2022-12-12
55	온통	[2022년_12월_온통] 다양한 가족을 존중해요	경**	2022-12-12
54	활동	[2022년_12월_활동] 가족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	경**	2022-12-12
53	책임	[2022년_12월_책임] 숭고한 책임의 빛	경**	2022-12-12

경북교육청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인성인문학교육센터’는 학교 폭력과 인간 존엄의 가치 상실 예방 사업, 인성 인문학 교육 자료 개발·보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마당, 참여마당, 나눔마당으로 나눠 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 지역 인문학 자료뿐 아니라 인성 인문학 교수학습 자료를 학교급별, 지역별, 교과 융합 수업 사례별로 게시하고 있어 인성 교육 수업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인문학 콘서트’의 학교별 사례도 보고서 형태로 공개하고 있어 각 학교에서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북인성인문학 교육지원센터 실천자료

06

다누리배움터  
danurischool.kr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danurischool.kr.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Home,로그인, 회원가입, and a search bar labeled '다누리 배움터'. Below the navigation is a horizontal menu bar with links for 문화인교육, 참여가는 교육, 아이페이지, 자료실, and 전문강사들.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section titled '다문화 인식개선 콘텐츠' (Multicultural Awareness Content). It displays three video thumbnails with titles in Korean: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6회: 우리는 세계시민' (Thumbnail: 4 people holding flags),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5회: 고민해결 프로젝트' (Thumbnail: Girl with a green headband), and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4회: 바꿔야 할 반응' (Thumbnail: Red and green shapes). On the left side, there's a sidebar with links for 자료실, 문화이정, 대문화인식개선콘텐츠, and 다문화이해교육카드.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문화 교육은 인성 교육과 연결됩니다. 한국건강가 정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다누리배움터'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다양한 다문화 이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별 온라인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인식 개선 관련 각종 콘텐츠를 지원합니다. 다문화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인식 전환, 편견 해소를 위해 연중 상시로 찾아가는 이해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에서 제공하는 다문화 웨드라마와 영상 자료를 감상하는 것도 학생들이 다양한 배경의 문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누리배움터 다문화 이해 교육 자료

## 07

에듀에이블  
eduabale.net

The screenshot shows the Eduable.net homepage with a blue header bar.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인권교육 콘텐츠' (Human Rights Education Content). Below the title, there is a brief introduction in Korean. A navigation bar at the bottom includes links for '인권교육 프로그램' (Human Rights Program), '인권교육 자료' (Human Rights Materials), '인권교육 영상' (Human Rights Video), and '인권교육 게임' (Human Rights Game).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인성 교육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특수 교육 전문 포털 ‘에듀에이블’에는 다양한 특수 교육 콘텐츠와 현장지원단에서 제작한 수업 지원 자료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수 교육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수학습 자료, 교육 영상, 온라인 학습방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장애 학생 수업을 위한 멀티미디어 복과 디지털복, 점자 지도서 등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 자료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콘텐츠도 담고 있어 장애학생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에듀에이블 인권 교육 자료

## 특색 활동 (1)

# 자습 시간을 활용한 루틴 활동

### 최 선 경

북동중학교 영어 교사이다. 교사의 성장을 지원하는 '고(Go!), 래(Future), 학교(School)'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고래학교'의 교장이다. 프로젝트 수업, 체인지메이커 교육의 경험을 공유하며, 교사가 먼저 체인지메이커가 된 후 학생을 체인지메이커로 가르치고 싶다는 바람을 담아 고래학교를 운영 중이다. 저서로는 『중등학급경영\_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실을 만든다』, 『어서 와! 중학교는 처음이지?』 등이 있다.



2월에 반 아이들의 명렬표를 받아 드는 순간, 만감이 교차한다. 새 학기를 어떤 아이들과 함께 보내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도 있지만, 불안한 마음도 큰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소문난 말썽꾸러기 이름이 있다면 걱정이 앞서고, 왕따를 당했던 아이 이름이 보이면 안타까움과 불안함이 뒤섞인다. 학부모의 민원이 잦았던 아이의 이름이 눈에 띈다면 두려움이 앞선다.

이제 막 교직 생활을 시작하는 신규 교사라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1년 동안 어떠한 난관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으니 불안함에 두려움이 더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담임교사의 역할이 어려운 이유는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십 명의 학생을 학급 전체는 물론이고 학생 개별, 혹은 무리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지켜보고 지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경제적·정서적 환경을 비롯해 교우 관계, 학습태도, 생활 습관 등 학생과 관련되는 모든 일을 알아야 하는 책임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담임교사의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반 아이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할 수 없는 중학교 담임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온전하게 파악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조·종례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교과 선생님들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학기 초에 학생 - 교사, 교사 - 학부모, 교사 - 교사와의 관계를 잘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를 통해 교실 내에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학급 분위기가 형성되면 담임교사 혼자서는 채우기 힘든 많은 구멍을 자연스레 메울 수 있다.

담임의 권위는 힘이 아닌 철저한 준비성에서 나온다. 철저한 준비와 관심(관찰)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아이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담임을 바라볼 것이다. 미리 준비한 계획을 3월 한 달 동안 제대로 실천했다면, 이후 학급 활동은 연간 학사 일정을 바탕으로 교사의 교육관에 학급 아이들의 의견을 덧입혀 조율하며 운영하면 된다. 그러면 교사와 아이들의 색깔에 따라 다양하고 톡톡 튀는 교실 풍경이 그려지게 될 것이다.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 초기에 가장 명심해야 할 일은 아이들을 이전의 학교 생활과 상관없이 새로운 마음으로, 편견 없이 대하겠다는 다짐이다. 아이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없이 아이들과 담임인 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애정으로써 아이들을 대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학기 초 안정감 있는 교실을 만들고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따로 시간을 내지 않더라도 아침 자습 시간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이라 적용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 전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 반 학급경영 활동은 평소 교사의 교육 철학에 부합해야 하고 그 삶과 가까워야 한다. 담임교사의 교육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학급경영 활동이 아니라 단순히 괜찮아 보이는 활동을 선택해 실천하려 한다면, 오히려 교사가 좌절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신을 성찰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학급 특색 활동은 이벤트성으로 특정 시기에 할 수 있는 활동과 매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루틴화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활동을 소개하려고 한다. 교사와 학생 모두 예상 가능한 하루의 루틴이 있어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 어떤 활동이나 규칙을 정했을 때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예시를 공유하고 수시로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 [우리 반 루틴 1] 오늘의 한 줄

습관 인증 카톡 방에서 요일 당번을 정해 좋은 글귀나 명언을 나누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활동이었는데, 학생들에게도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

이 들었다. 교사는 이렇게 늘 자신이 배우고 익힌 것을 수업이나 학급경영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존재이다.

3월 첫 주, 내가 뽑은 명언을 칠판에 붙여 두는 것으로 시작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번호와 같은 날에 선생님이 한 것과 같이 명언을 조사해 와서 칠판에 적고 함께 생각하는 활동이라고 안내했다.

살짝 걱정이 되었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아침 자습 시간에 내가 교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칠판에 ‘오늘의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그 한 줄을 보는 날에는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간혹 명언을 준비해 오지 못한 아이들은 “선생님,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해 봐도 될까요?”라며 바로 찾아내기도 했고, 미리 준비해 둔 명언 카드에서 골라 칠판에 옮겨 적기도 했다.

교사 연수에서 만난 한 선생님이 손잡이가 달린 작은 종이가방에 손수 만든 명언 카드들을 담아 선물로 준 적이 있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칠판 옆에 걸어 두고 아이들이 수시로 꺼내 보게 했다. 그렇게 하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오늘의 한 줄을 적는 아이들보다 명언 카드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적는 아이들이 더 많았다.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오늘의 한 줄’을 활용해 전하면 어떨까? 학생들은 명언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그 의미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 보는 과정에서 표현력을 키운다.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로써 생각과 마음이 한층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 시절, 성적을 올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글과 말로 표현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한다. 매일 아침 ‘오늘의 한 줄’을 적고 그에 대한 생각을 나누다 보니 아이들의 기발한 생각과 표현에 웃음 짓는 경우가 많았다.

### ‘오늘의 한 줄’ 활동 방법

- 매일 아침 담당자가 칠판에 ‘오늘의 한 줄’을 적는다. 날짜별, 요일별 담당자 정하기 등과 같은 학급 규칙을 정해 담당자를 배정한다.
- 칠판에 적힌 ‘오늘의 한 줄’을 각자의 고래 점착 메모지<sup>1)</sup>에 옮겨 적는다.

1) 의미 있는 가치를 선정하고 자신의 언어로 해석하여 다짐을 작성하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메모지이다.  
(shop.teacherville.co.kr/goods/view?no=922226)

- ‘오늘의 한 줄’을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한다.
- 자신의 설명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 ‘오늘의 한 줄’은 미리 검색하여 조사해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사는 미리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예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한다. 칠판 옆에 명언 카드를 비치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학생들이 참고하도록 한다.
- 고래 점착 메모지 대신 각자 노트에 옮겨 쓰고 그림으로 표현해도 좋다.
- 명언 꾸미기 활동으로 응용할 수도 있다. 국문이나 영문으로 문구를 적고, 그 뜻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거나 타이포그래피로 새롭게 나타내거나 그 문구를 선택한 이유 등을 적어 반에 게시한다.
- 같은 책을 읽고 각자 기억에 남는 문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해 보는 것도 새롭고 좋은 방법이다.

#### ‘오늘의 한 줄’의 효과

- 긍정의 문구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다.
- 매일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 고래 점착 메모지를 사용하여 ‘오늘의 한 줄’을 진행할 경우, 칠판에 부착한 메모지를 보며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을 알 수 있다.
- 아이들이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오다가다 좋은 글귀를 만나면 인성 교육에 도움이 된다.
- 모든 학생들이 ‘오늘의 한 줄’을 적으며 자신이 학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 ‘오늘의 한 줄’의 확장

‘한 줄’ 문장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이 한 줄에서 출발해 학생들의 생각을 끌어내는 글쓰기로 활동을 확장할 수 있다.

## 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

강OO

나는 오늘의 한 줄에 기록된 명언 중 하나를 뽑아 그것을 주제로 글을 써 보려 한다. 내가 뽑은 오늘의 한 줄은 “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더 큰 낭비이다”. 내가 이것을 오늘의 한 줄로 뽑은 이유는 이 문장을 보고 나의 경험이 떠올랐고 이 문장의 내용이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이다. 시험 기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핸드폰을 하고 친구들과 놀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 공부를 하지 못했다.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이다. 그날 밤 자기 전에 ‘시험을 망칠 것 같다.’고 불안해하면서 ‘왜 핸드폰을 했지?’라며 핸드폰으로 낭비한 시간을 후회하며 시간을 보냈다. 결국 시험을 망쳤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데 그 시간을 생각하며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또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낭비한 시간을 생각하며 후회할 시간에 시험 공부를 하며 한 글자라도 더 불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나는 후회할 일을 하지 않고 후회할 일이 생기더라도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여 시간을 낭비하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한 줄’을  
읽고 정리한 학  
생들의 다양한  
생각



**Student A:**

자신을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라  
고기 고신에 모범을 떠난다. 월 계획은  
다른 사람과 내 모습을 비교할 수록  
정말에 학생은 내 삶에 마음의 풍경이  
된다. 그리고 그 행동경험을 더 이롭  
게 한다. 내가 나고 너는 며느리를 봄마를  
개를 뱉었기 있다. ‘나는나’에서 학생의  
기 때문이었다.

**Student B:**

나 자신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다. 부족한 점을 꾹꾹한다.

**Student C:**

모든 사람의 내 경험 속에는 없다. 난 또한  
다른 사람을 봐다 할 때 맛이 맛있어  
비교해서 알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Student D:**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자 중요하므로 자신에게  
책임을 주는 것도 좋지만, 모르고  
직접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의 한 줄’을  
적고 자신의 생  
각과 그림으로  
표현한 예시

**Student Draw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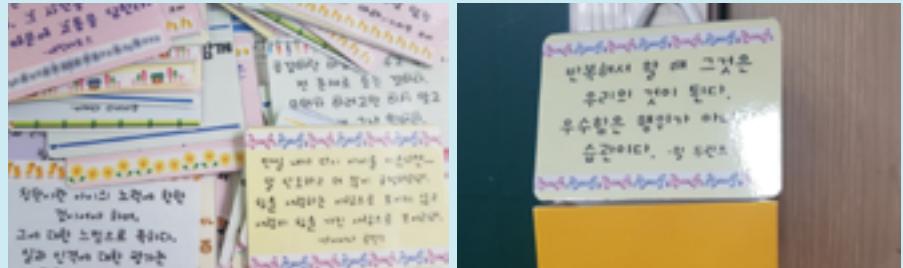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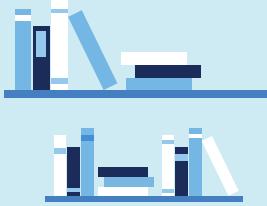
A simple line drawing of a person's head and shoulders, facing right, with a small speech bubble containing Korean text.

**Student Drawing:**

A drawing of two stylized figures, one larger and one smaller, facing each 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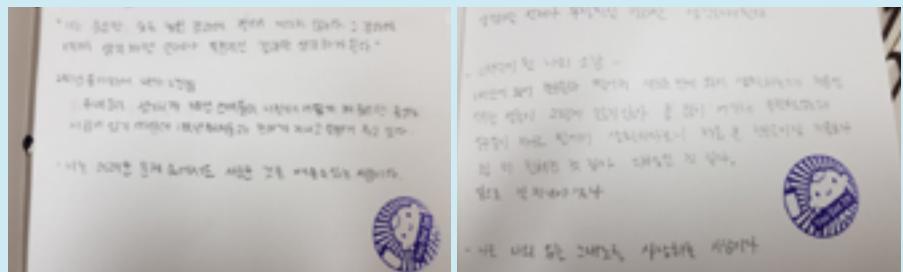
**Student Drawing:**

A drawing of a person's head and shoulders, facing right, with a small speech bubble containing Korean 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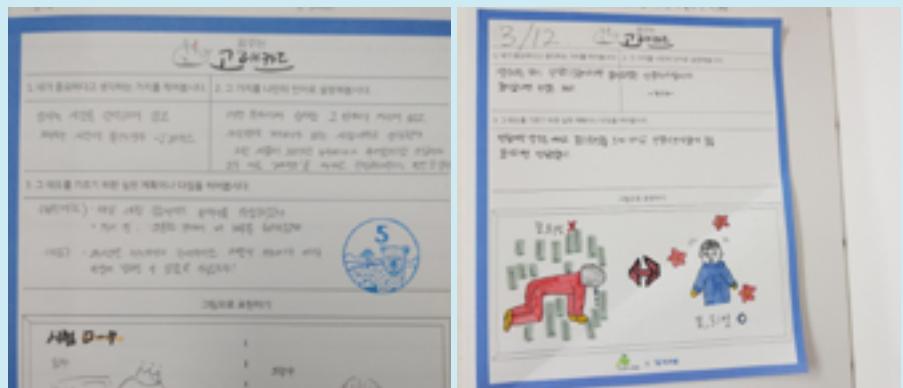


명언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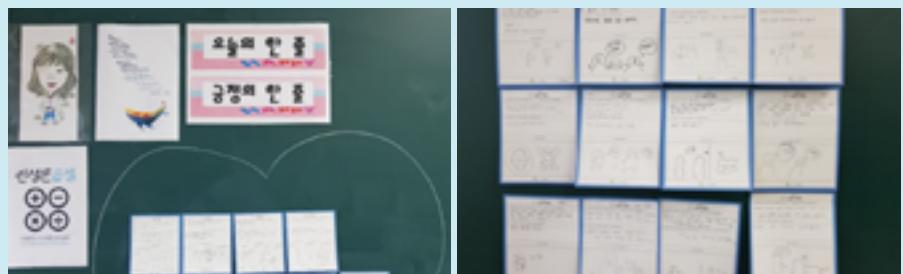
칠판 옆에 비치한 명언 카드



노트에 쓴 오늘의 한 줄



고래 점착 메모지에 쓴 오늘의 한 줄



칠판에 작성한 오늘의 한 줄

## [우리 반 루틴 2] 성장 일기

중학교에서 22년간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길러 주기 위해 고안한 것이 ‘성장 일기’이다. 학생들이 꼭 가져야 할 습관을 이 성장 일기에 다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성장 일기’는 크게 세 가지 활동으로 나눈다. ①성찰하기(성찰 일기 쓰기), ②복습하기(배움 일기 쓰기), ③감사하기(감사 일기 쓰기)이 세 가지 습관을 매일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성장 일기’ 활동 방법

#### ① 성찰 일기 쓰기

매일 아침 자습 시간에 ‘성장 일기’를 펴고 성찰 일기를 작성한다. 그날의 에너지 지수와 이유, 그리고 어제 하루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을 기록한다. 일기의 목적은 성장을 통해 일상생활에 의미 부여하기, 반복되는 일상에 감사한 마음 갖기, 매일 아침 작성하는 작은 습관 실천하기이다. 좋은 습관은 좋은 사람을 만든다.

#### ② 배움 일기 쓰기

배움 일기를 작성한다. 1교시부터 수업을 마치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 배움 일기를 쓰는 목적

- 수업 직후에 하는 복습이 학습에 가장 효과적이다. 10분만 지나도 뇌는 망각을 시작한다. 잊어버리기 전에 그 시간에 배운 내용을 리마인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수업이 끝나고 잠깐이라도 그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본다.
- 집에서 그날 수업에 배운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며 복습하는 것이 공부 습관을 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배움 일기를 쓰는 규칙

- 배운 내용 요약하기: 마인드 맵, 핵심 키워드, 그림 등을 활용한다.
- 시간표나 단원 제목을 그대로 적지 않는다.
- 교과 수업 중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 온전히 집중한다.
- 수업 중 자습 또는 독서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공부한 내용 또는 읽은 책의 내용을 기록 한다.
- 배움 일기는 모든 수업이 끝나고 쓰는 것이 아니라 매 쉬는 시간마다 기록한다.
- 한꺼번에 몰아서 기록하지 않는다.

### ③ 감사 일기 쓰기

일과를 마친 후 종례 시간에 그날의 감사 일기를 작성한다.

#### 감사 일기를 쓰는 규칙

- 무엇이 왜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쓴다. 감사함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왜냐하면’, ‘덕분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감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느낀 감사의 감정은 훨씬 더 진실해지고 깊어진다.
- ‘~ 덕분에 감사합니다.’와 같이 항상 긍정문으로 쓴다.
-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일상의 모든 일에 감사한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변하지 않고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언제나 ‘긍정을 선택하기’가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진다.

#### 감사 일기를 쓰는 TIP 1

감사 일기를 적을 때는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생각하는 걸 추천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일 똑같은 내용만 적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소중한 친구들: 내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준 친구 또는 내가 매우 높이 평가하는 친구를 떠올린다.
- 오늘 내게 주어진 기회: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 체험 활동에 참여할 기회 등 아주 특별한 기회가 아니어도 괜찮다.
- 어제/오늘 있었던 근사한 일: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일을 생각해 본다.
- 눈에 보이는 단순한 사물들: 창밖으로 흘러가는 양털구름, 사각사각 쓰고 있는 펜, 잔잔한 음악 소리 등 구체적인 대상으로 눈을 돌려 보자. 무엇이든 문득 새롭게 느껴진 것이면 모두 대상이 된다.

#### 감사 일기를 쓰는 TIP 2

하루에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적는다. 이때는 부모님께 감사한 일, 선생님께 감사한 일, 친구에게 감사한 일을 적는다. 친구에게 감사한 일을 적을 때는 같은 반 친구들 모두에게 한 번씩은 감사한 점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다.

### '성장 일기'의 효과

-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학생의 기분이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 매일 조금이라도 글을 쓰게 되어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게 된다.
-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 준다.
-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 준다.
- 자투리 시간 활용의 소중함을 알게 해 준다.
- 작은 일이라도 매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 아이들 인성 함양에 효과가 있다.

### '성장 일기' 활동 팁 및 주의 사항

- 네이버 블로그 '선경쌤의 선경지명(blog.naver.com/dntjraka75)'에서 '성장 일기'를 검색하면 작성 예시를 볼 수 있다.
- 성장 일기를 계속 작성하게 하려면 반드시 교사의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 답글을 적어주는 것이 더 좋긴 하겠지만, 매일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도장이나 스티커를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 작성 여부를 기록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정해 두면 성장 일기를 쓸 동기가 강해진다. 작성 성공은 동그라미 표시를, 실패는 엑스 표시를 하고 그 이유를 적게 한다.
- 담당자를 정하여 성장 일기 작성 여부 및 제출 여부를 파악하게 한다.
- 3일, 21일, 66일, 90일의 기간별 게이트를 정하여 통과 시 전원에게 작은 선물을 제공하는 보상을 실시한다.
- 매월 또는 매주 성공률 상위 다섯 명을 발표하여 선물을 증정하는 것도 좋다.
- 성장 일기 앞표지와 뒤표지는 각자 개성 있게 꾸미도록 한다.
- 개별 활동지로 작성한 경우 분기별, 학기별 혹은 1년 단위로 묶어 책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성장 정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N**

**성장일기 작성안내**

책년 전 번 쓰면한 위험 :

성장일기 작성하는 목적과 기록 규칙!

- 질문은 풍미 질문에 허락을 주면하고자 한다.
- 책은 글자를 살피는가 희망합니다. 좋은 글자는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
- 개인 비밀이나 일상을 다른 후 그 당시 상황입니다. 개인 활동입니다.
- 관찰자는 학생에 관심을 미친다. 관심을 갖습니다.
- 무언가에 대한지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 나에게 관심을 미친다. 적으로 항상 구경으로 합니다.
- 관찰자를 책은 나에게 믿고, 나에게 좋아해지는 것 추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끄드려서 책에 대한 관심은 내용인 책에 있습니다.

1. 내가 찾았던 조용을 주었거나, 내가 책은 놀이 했거나는 경우  
2. 나는 대체 주제를 거친 경우를 대해서 말해보거나, 저작활동 참여 기록 등  
3. 어떤 활동을 준비한 걸, 어떤 거리를 경험하거나 책에 있는 영역은 및  
4. 기여하여 염마나 누네 되는 행동한 경우, 정직으로 험마나 누네 사과 또는  
영감, 책, 전문학 등의 초기 솔직한 내용이면 좋고 내용이 노려지거나 능력이면 다 좋습니다.

**제시**

- 이를 통해 더욱 이해하는데 참고와 먼저 내용 관찰은 미리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 책은 책과 함께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 책은 책과 함께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 책은 책과 함께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서평에는 우리가 출판을 만들지만 그 내용에는 출판의 우리를 만난다.

성장 일기 작성 예시

**성장 일기의 구성<sup>2)</sup>**

**학생이 이야기하는 성장 일기의 좋은 점**

평소 당면, 익숙한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었다.  
하루에 2개씩 감사한 점을 쓰며 내 평소 일상들을 성찰하며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다.  
성찰일기에는 이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다. 그리고 수업을 복습할 수 있어서 좋았다. 2학기엔 시험을 안쳐서 개인적으로 복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장일기를 통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어서 좋았다.

2) 성장 일기 노트는 한 페이지에 성찰 일기, 배움 일기, 감사 일기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shop.teacherville.co.kr/goods/view?no=981759](http://shop.teacherville.co.kr/goods/view?no=981759))

\* 최선경 선생님의 학급경영 이야기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경쌤의 선경지명  
[blog.naver.com/dntjraka75](http://blog.naver.com/dntjraka75)



선경쌤의 선경지명  
[youtube.com/@user-wo5pj6jn5h](https://youtube.com/@user-wo5pj6jn5h)





## 챗GPT in School

### 교육을 위한 AI 탐구 생활 (1)



인공지능(AI) 기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 왔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언어 처리 기술이 두각을 나타내며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바로 **오픈AI가 개발한 챗(chat)GPT**이다.

챗GPT는 광범위한 자연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뛰어난 능력 덕분에 챗GPT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대화를 구사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식을 제공한다. 이는 사회 전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 분야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챗GPT의 등장 배경, 그 정체와 한계에 대해 알아보고 교육 분야에서 어떠한 효과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가입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음 호에서는 실제 교과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조재범

경기 용인 보라초등학교 교사이다. ICT로 시작해 영어 그리고 메타버스, 인공지능(AI)을 교육에 접목시키고 현장에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23년째 교육 일선을 지키고 있다. 현재 '쉽고 달콤한 초등생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교육 이슈와 초등 교육에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모든 교사들이 크리에이터가 되고 교사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사크리에이터협회(t-creator.com)' 이사로 활동 중이다. 또한 2023년 경기교사 연구년 연구교사로서 미래교육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

## 챗GPT의 개념

### 1. 역사 및 등장 배경

챗GPT의 역사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AI 분야에서 자연어 처리 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해 왔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언어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다. 오픈AI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다양한 세대의 GPT 모델을 개발했다. 초기 모델인 GPT와 GPT-2가 발표된 이후, GPT-3 모델이 등장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후 GPT-4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한 챗GPT-4가 개발되었다.

### 2. GPT란?

챗GPT는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사용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통한 사전 학습과 세부적인 과제를 위한 후속 학습의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얻어진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텍스트를 생성하고 수정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먼저 GPT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이다.**

**Generative(생성적):** GPT 모델이 기존의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모델은 주어진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연속된 단어를 생성함으로써 문장, 문단 또는 글 전체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생성적 모델은 다양한 언어 작업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Pre-trained(사전 학습된):** 모델이 미리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사전 학습 과정에서 모델은 문법, 문맥, 어휘, 일반 지식 등 언어의 다양한 요소를 습득한다. 사전 학습을 통해 모델은 높은 수준의 언어 이해 능력을 가지게 되며, 이후에 특정 작업을 위한 추가 학습(Fine-tuning)을 통해 더욱 세밀한 능력을 키울 수 있다.

**Transformer(변신체):** GPT 모델의 기반 구조로 사용되는 신경망 아키텍처를 의미한다. 이 아키텍처는 입력된 텍스트의 단어 간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해 준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나는 그녀에게 꽃을 선물했다.’ 이 문장에서

‘나는’은 ‘선물했다’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꽃을’은 선물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Transformer’는 이러한 문장 내의 단어 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거나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챗GPT의 한계

챗GPT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 1. 지식 범위의 한계

챗GPT의 지식 범위는 그 학습 데이터에 근거한다. 현재 챗GPT는 2021년까지의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최신 정보나 트렌드에 대한 지식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다.

### 2.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환각) 현상

가끔 챗GPT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챗GPT의 대답은 정답이 아니라 ‘정답일 확률이 가장 높은 답변’이다. 그래서 잘못된 질문을 해도 확률적으로 맞을 법한 대답을 한다. 챗GPT 초기 버전은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러한 현상이 자주 일어났는데, 챗GPT-4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챗GPT가 내놓은 대답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순신 장군이 만든 한글호에 대해 설명해줘

 한글호는 16세기 말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개발한 선박으로, 당시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이 순신 장군은 조선 왕조의 해양수군을 이끌면서,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많은 전적을 쌓았는데, 그 중에서도 한글호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한글호는 1613년에 진수되었으며, 길이 44m, 너비 12m, 높이 6m에 이르는 대형 선박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글호를 만들 때, 당시의 조선 선박 기술을 한 걸음 발전시키며, 선체 구조와 동력체계 등을 혁신적으로 설계하여 더욱 강력하고 안정적인 선박을 만들었습니다.

한글호는 일본의 침략과 싸우는데 사용되었으며, 당시 조선의 최첨단 군사 기술과 함께 일본을 상대로 무세를 점령했습니다. 이후 한글호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많은 전투를 거쳐 전적을 쌓았으며, 그 후 광해군 때 해외 무역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한글호는 이후 여러 차례 수리를 거쳤지만, 1636년에 일어난 청나라의 침략 때 마침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만들어낸 한글호의 기술은 그 이후로도 조선시대의 선박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챗GPT-3.5에서 나온 답변(할루시네이션)

 이순신 장군이 만든 한글호에 대해 설명해줘

 이순신 장군이 만든 '한글호'는 사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의 무신으로, 대표적인 전투로는 임진왜란(1592-1598)에서 거행한 영랑대전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 전투에서 거북선이라는 헬기선을 사용하여 일본의 침략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편, 한글은 조선시대의 세종 대왕이 창제한 문자로,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 대왕은 백성들이 문맹에서 벗어나고자, 한글을 창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백성들은 과거에는 알기 어려웠던 한자 대신 한글을 사용하여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순신 장군이 만든 한글호라는 정보는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통해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한글은 세종 대왕이 창제한 문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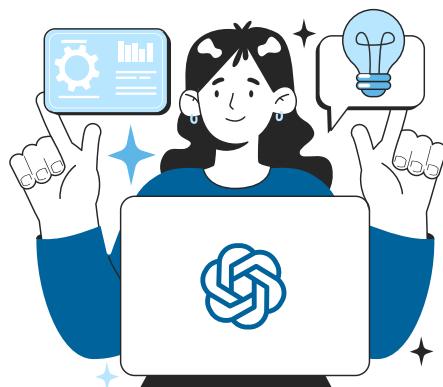
챗GPT-4에서 나온 답변

### 3. 멀티미디어 지원 제한

아직 챗GPT는 주로 텍스트를 입력하고 텍스트로 출력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그림, 사진 또는 영상이나 사운드 등은 입·출력이 되지 않는다. 챗GPT-4에서는 사진을 입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은 정식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PDF를 입력하거나 멀티미디어를 지원하기도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 4. 사용자의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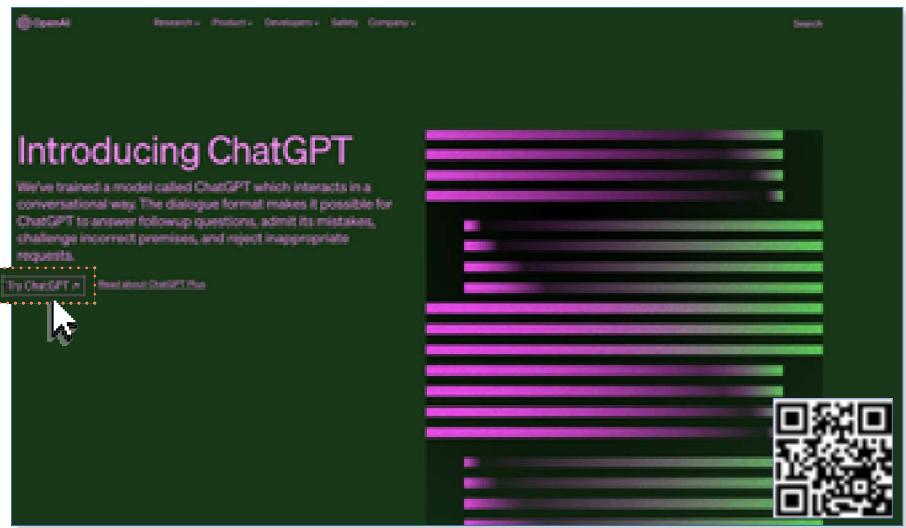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서는 18세 이상만 챗GPT의 사용이 가능하고, 13세 이상 18세 미만이면 부모님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13살 미만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챗GPT를 학생들에게 바로 사용하게 하는 것보다는 수업 교수 자료를 만들 때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 챗GPT의 교육적 효과와 가치

이러한 제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챗GPT는 다음과 같은 장점으로 교육적 효과와 가치가 있다.

- **개별화된 학습 가능:** 챗GPT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답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속도와 필요에 따른 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 개별화 교육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 **즉각적인 피드백:** 챗GPT는 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교수 자료 제작 시 그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습:** 챗GPT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과목에 활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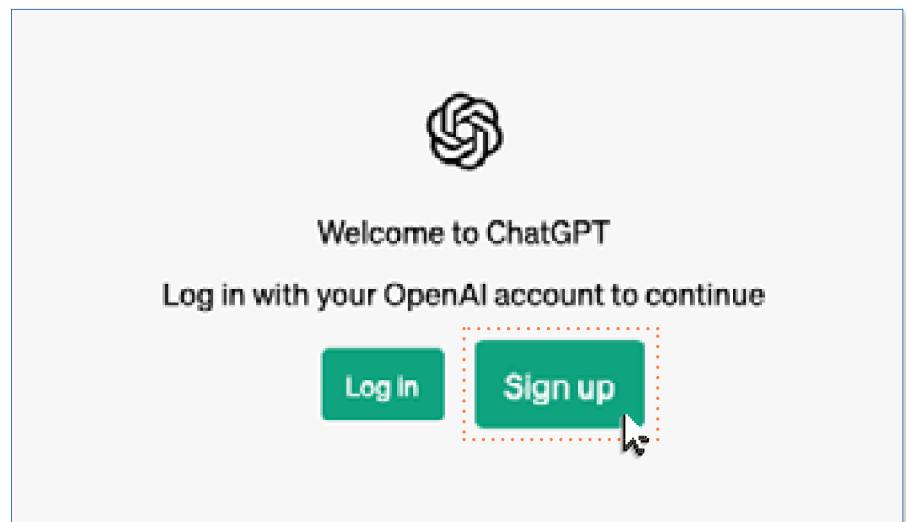
챗GPT 홈페이지: [openai.com/blog/chatgpt](https://openai.com/blog/chatg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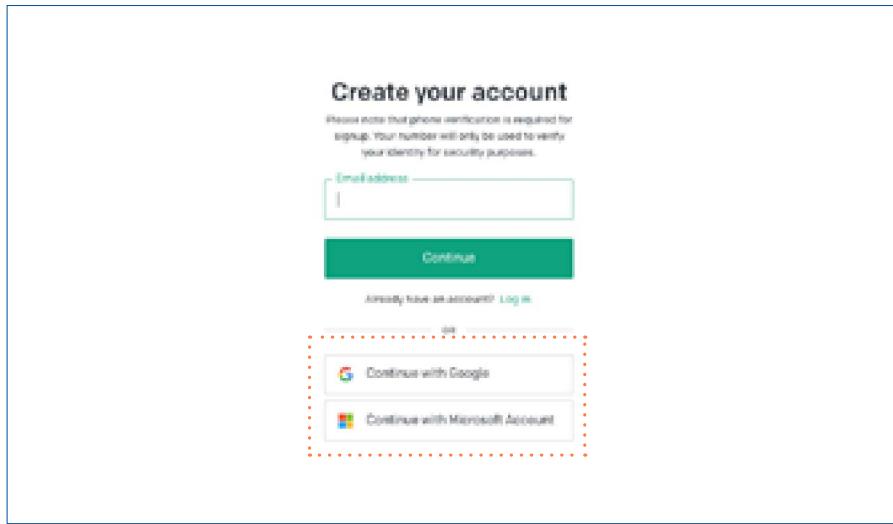
## 챗GPT에 가입하기

먼저 챗GPT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한다.

위 홈페이지 화면에서 'Try ChatGPT'를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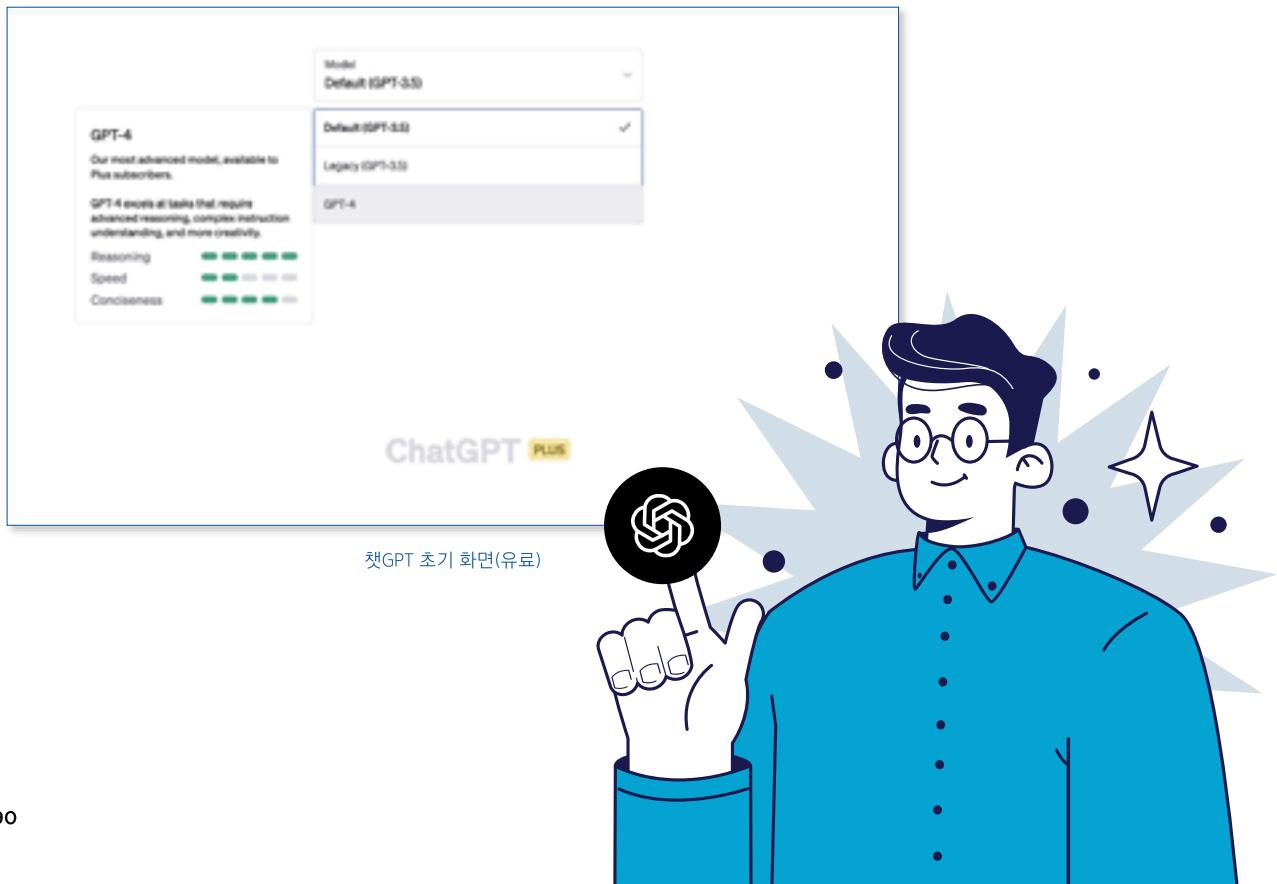
아래 이미지처럼 가입을 위해 'Sign up'을 선택한다.





구글 아이디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면 연동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을 한 후 초기 화면은 다음과 같다.



로그인 후에 만나는 첫 화면은 유료 회원 화면으로, 'ChatGPT PLUS'라는 문구가 보인다. 비용은 한 달에 2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유료 회원이 되면 기존의 GPT-3.5는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GPT-4를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정적이란 의미는 2023년 4월 24일 기준으로 3시간당 25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활용해 보면 챗GPT-3.5보다 챗GPT-4가 월등히 우수하다. 한글을 보다 잘 인식하고 한글로 된 결과물을 더 세련되게 산출해 낸다. 또 챗GPT의 한계 중 하나인 할루시네이션도 많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챗GPT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싶다면 챗GPT-4를 사용해 볼 것을 추천한다. [N](#)

---

\*조재범 선생님의 에듀테크 이야기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고 달콤한 초등생활  
[youtube.com/@bestcho](https://youtube.com/@bestcho)



## 학생 성장 기록지를 활용한 교과 학습 피드백

### 황유진

『슬기로운 중학 생활』 저자이자 상암중학교 교감이다. 수학 교사로 21년 동안 근무했으며 연구부장, 교무부장으로서 자유학기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자유학기제 연구 학교를 운영하는 4년 동안 교육과정, 평가 방법 등에 대해 고민하며, 제1회 자유학기제 실천 사례 연구 대회에서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1등급을 수상했다. 현재는 유튜브 '왓쌤TV'를 통해 자유학기제 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 자유학기(년)제, 아이의 학습 상황이나 수준이 궁금하다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도무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유학기(년)제 운영 초창기에 만났던 학부모의 적나라한 토로입니다. 심지어 자유학기(년)제 관련 토론회 등에서도 종종 논의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2, 3학년의 경우에는 지필 평가 결과와 학기말 성적 통지표를 통해 학생의 학습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1학년 때에는 중간·기말고사가 없고 교과의 성취도가 산출되지 않으니 아이의 학습 성취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유학기(년) 중에는 일제식 지필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기반하여 학생 참여형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때의 평가가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수많은 연구 자료와 사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많은 교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시험이 없는 자유학기(년)제로 인해서 학습 상황이나 학습 습득 수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끌어내는 평가란 무엇인가?’라는 고민과 함께 이를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평가의 과정과 결과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동안 자유학기(년)제 연구 학교들을 중심으로 자유학기(년) 중 학생의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 학생이 다음 학습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제는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발표하는 자유학기(년)제 운영 계획서에서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각종 피드백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은 학생에게 수행 과제의 완성 정도와 보완해야 할 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학습 성취 수준 파악과 가정에서의 지원 방안 모색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동안 실천해 왔던 자유학기(년) 기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피드백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교과 학습, 피드백 계획 세우기

‘단원 평가 점수를 안내하고, 틀린 문제를 풀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머릿속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니 단순한 작업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교과 학습 피드백 방법을 모색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단원 평가로 이루어지는 경우, 점수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 과정에서 학생이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나 수학 기호를 잘못 사용한 부분을 체크해 주고 싶었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피드백뿐만 아니라 학생의 교과에 대한 태도 등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기존의 지필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자유학기(년) 동안 자녀의 학습 정도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 없었다는 학부모들을 위한 자료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수학이라는 교과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한 안내는 학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의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과정 중심 평가, 피드백 정리하기

다음은 ‘교과 피드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탄생한 ‘수학과 학생 성장 기록지’ 양식입니다. 가정 통신문 양식을 빌려, 자유학기(년) 동안 수학 교과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학생 활동에 대한 안내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중심으로 자유학기(년)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중학교

# 수학과 학생 성장 기록지

1학년 ( )반 ( )번  
학생명 ( )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1반부터 4반까지 1주일에 3시간씩 수학을 담당하는 교사입니다.

본 기록지는 부모님께 자녀의 학습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수업 태도와 학습 활동 내용 등을 기록하였으므로 학생 이해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학습과 관련된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5일 ○○중학교 수학과 교사 황유진 올림(전화 △△△-□□□, 연구부)

## ◎ 1학기 수학 교과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교육부 지정 자유학기제 연구 학교로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므로 정기고사는 2학기 기말고사만 실시합니다. 정기고사를 치르는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 우리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 등에 대한 고민거리로 수학 교사들이 모여 몇 차례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자유학기제의 취지대로 다양한 활동 중심 수업과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원, 지필 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습 결과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 단원으로 수업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재구성 순서 >

2. 정수와 유리수 - 5. 통계 - 6. 기본 도형과 삼각형의 작도 - 7. 평면 도형의 성질 -
8. 입체 도형의 성질 - 1. 소인수분해 - 3. 문자와 식 - 4. 함수의 그래프

또한, 일주일에 4시간 진도를 나가기만 했던 수학 수업을 3시간은 교과 진도, 1시간은 수학식 쓰기 시간으로 구성하여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 3월부터 현재까지 학생은 수학 시간에 아래와 같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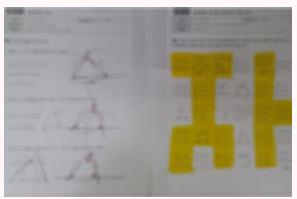
1. 정수와 유리수: 수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개념을 형성하고 문제 풀이 방법을 지도함과 동시에 기초 계산 능력 향상을 위한 매일 10문제 형성 평가로써 피드백을 실시하였습니다.
2. 통계: 수학 교과서 속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해결해 보고, 계산기 사용과 함께 실제 주제를 정하여 통계 포스터 그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3. 기본 도형과 삼각형의 작도: 눈금 없는 자와 컴프스로 기본 도형을 작도하는 과정을 통해 도형의 정의와 성질 등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말하는 대로 작도하기’ 학습지를 해결하였습니다.
4. 평면 도형의 성질: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구하기부터 시작하여 대각선의 총 개수, 한 꼭짓점에서 그은 대각선에 의해 나누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로 다각형 내각의 합을 구하기까지 학습하였으며,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운 원의 넓이와 원주 구하기 등을 원주율과 함께 학습하였습니다.
5. 입체 도형의 성질: 초등학교에서 배운 각기둥이나 각뿔이 다면체임을 이해하였고, 정다면체가 다섯 가지뿐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지오픽스’ 교구를 활용하여 도형의 성질을 알아 갔습니다.



말하는 대로 작도하기



지오픽스 교구 활용 수업 모습



삼각형의 결정 조건과 작도

◎ 수학 시간 학생들이 자주 실수하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도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아래의 내용들을 발견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아직도 실수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생이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1. 통계 단원에서 자주 하는 실수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 구하기:** 계급에 속한 도수가 3인 경우 해당 계급의 계급값을 가진 자료가 3개임을 이해하는 데 힘들어했습니다. (교과서 176p)

**상대도수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기:** 상대도수를 구하는 것을 힘들어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 시작과 끝 점을 나타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교과서 188p)

\* 지도: 도수분포표 속에서 계급과 도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평균 구하는 법과 계산기 활용법, 상대도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과정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 기본 도형과 삼각형의 작도 단원에서 자주 하는 실수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하여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는 잘 이해하지만,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는 여러 번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교과서 22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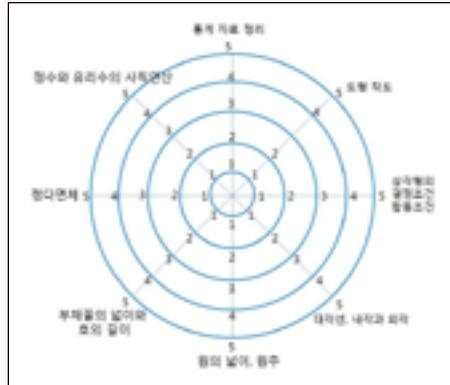
\* 지도: '말하는 대로 작도하기' 활동지로 학생 스스로 고민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학생은 이렇게 성장하였습니다.

학습 내용 / 학습 태도 / 학생별 특이사항 기록

◎ 학생의 성장 측정하기와 소감

1학기 수학 수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원이나 내용 또는 가장 즐거웠던 활동과 앞으로의 다짐에 대해서 적어 보세요. 여러분에게 평생 기억되는 중학교 1학년이 될 것입니다.



※ 선생님 저는 수학 단원별로 이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왼쪽 표에 1~5점 기준으로,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표시해 주세요. 7월 방학 전 주에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나의 수학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이나 계획을 적어 봅시다.

◎ 학부모 답장 (성장 기록지를 본 소감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중학교

## 수학과 학생 성장 기록지

1학년 ( )반 ( )번

학생명 ( )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수학 교과를 담당(1학년 1, 2, 3, 4반)하고 있는 교사 황유진입니다. 이번 학기 중에 학생이 수업 시간에 보여 준 학습 상황에 대해 교사가 관찰하고 느낀 점을 작성하여 보내 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 자녀들의 학습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수업의 태도와 학습 활동 내역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본 학생 성장 기록지는 학생 이해의 자료로만 활용해 주십시오. 자녀의 학습과 관련한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은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수학과 교사 황유진(전화 △△△-□□□□, 연구부)

◎ 2학기 수학 교과서는 이렇게 운영하였습니다.

☆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2학기 수학은 자유학기를 거쳐 2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수와 소인수분해,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에 대해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EBS Math 동영상으로 다양한 수학 관련 지식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올바른 교과서 읽기 지도와 학습 능력 확인>** 자칫 놓치기 쉬운 계산 능력이나 교과서 속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업 시간 교과서 밑줄 긋기와 2~3개의 소단원을 묶어 현재까지 5회의 형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형성 평가는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양한 활동 중심의 수업>** 1학기에 배웠던 정다면체를 지오픽스로 만들어 보는 시간과 팀원끼리 협력하여 정다면체 완성하기 전략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팀원끼리 릴레이 방정식 풀기 게임과 방정식 영토 확장 게임 등을 통해 일차방정식 풀이법을 익히고, 조별 게임을 통해 문제 해결력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EBS Math 동영상, 역사로 수학 들여다보기>** 시라쿠사에서 도형을 그리다 로마 병사에게 죽임을 당한 아르키메데스 이야기, 밀가루를 체에 거르듯 자연수도 체에 걸러 소수를 찾아내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등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로 수학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또한, 설국열차 이야기와 접목시킨 거듭제곱과 문자와 식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바코드 이야기와 주민번호의 특징 등에 대해 알아보고 수학적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어서 와! 이런 추석 처음이지? 문제 은행 추석 선물 세트>** 긴 연휴 동안 일차방정식을 풀기 위한 이전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를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강제가 아닌 희망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각 반에서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문제 풀이의 즐거움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 학생들은 교사가 그 결과를 기록하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학습 과제 해결 능력 + 수학 진로 관련 보고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별도 안내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차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류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오픽스로 정다면체 만들기



릴레이 정다면체 만들기



방정식 영토 확장 게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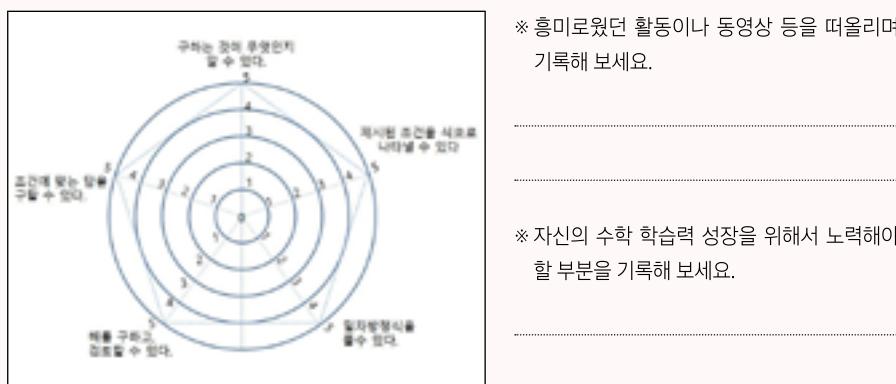
방정식 영토 확장 게임 2

- ◎ 학생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을 설명하고, 수정해 주었습니다.

<del><math>x = -2</math>일 때, <math>x^2</math>의 값을 구하시오.</del> <del>잘못된 풀이)</del> $\cancel{x^2 = -2^2 = -4}$	$x^2 = (-2)^2 = 4$	<b>(문자에 음수를 대입하는 경우)</b> 식의 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문자의 값이 음수인 경우 계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실수에 대해서 올바른 계산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b>(문자에 음수를 대입하는 경우) 수정 전</b>	<b>수정 후</b>	
<del><math>2x - 1 = 3</math>  <math>= 2x = 3 + 1</math>  <math>= 2x = 4</math>  <math>= x = 2</math></del>	$2x - 1 = 3$ $2x = 3 + 1$ $2x = 4$ $x = 2$	<b>(등호의 사용)</b>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종1 학생들이 저지르기 쉬운 수학적 실수들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그 중 등호 '='의 무분별한 사용이 있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특히, 방정식에서는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의 등호 '=' 사용을 주의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b>(등호의 사용) 수정 전</b>	<b>수정 후</b>	
<del><math>\frac{x}{2} + \frac{x+1}{3} \Leftrightarrow 3x + 2(x+1)</math>  <math>\frac{x}{2} + \frac{x+1}{3} = 1 \Leftrightarrow \frac{3x + 2(x+1)}{6} = 1</math></del>	$\frac{x}{2} + \frac{x+1}{3} \Leftrightarrow \frac{3x + 2(x+1)}{6}$ $\frac{x}{2} + \frac{x+1}{3} = 1 \Leftrightarrow \frac{3x + 2(x+1)}{6} = 1$	<b>(일차식과 일차방정식의 구분)</b> 분수가 있는 일차식의 경우에는 최소공배수로 통분하여 해결하고, 분수가 있는 일차방정식의 경우에는 양변에 최소공배수를 곱하여 해결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일차식에서도 양변이 있다고 생각하여 분모를 생략하는 경우가 발생함)
<b>(일차식과 일차방정식의 구분) 수정 전</b>	<b>수정 후</b>	

- ◎ 학생의 성장 측정하기와 소감 (성장 기록지를 본 소감이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점을 기록하세요.)

(아래쪽 표에 1~5점 기준으로,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표시해 주세요.)



◎ 학부모의 답장 (성장 기록지를 본 소감을 적어 주십시오.)

#### [학생 성장 기록지 구성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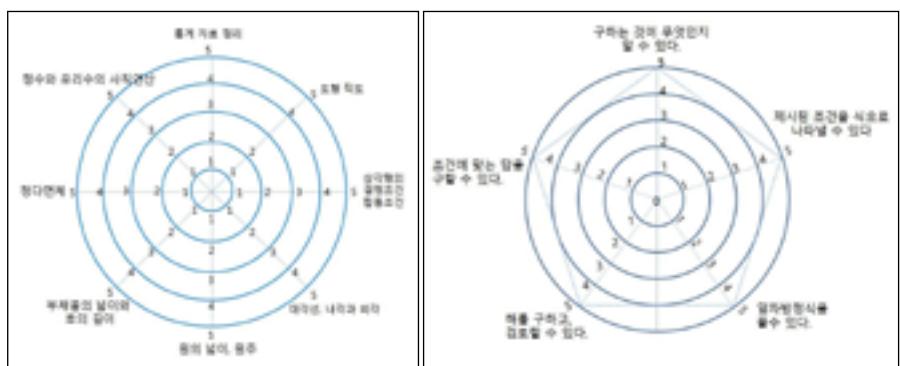
##### ◎ 수학 교과 운영 부분

학생 성장 기록지의 도입부에는 담당교사의 소개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후 단락에는 한 학기 동안 교과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중점적으로 지도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기록지를 접한 학생은 한 학기 동안 참여한 교과 수업을 돌아보며 전체 수업 과정 및 흐름을 되새기고, 학부모는 수학 교과 수업이 진행되는 취지 및 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활동 사진을 첨부하니 수업 과정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 ◎ 학습 내용 및 지도 부분

등호의 사용, 음수의 거듭제곱, 일차식과 일차방정식의 계산 과정 등 수업 도중 학생이 종종 실수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학생이 자신의 실수 습관을 깨닫고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학생 성장 기록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 풀이 과정에서 틀린 부분을 수정해 주었지만 자신의 오류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극복하기 위한 과정을 언급함으로써 피드백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 ◎ 학생의 성장을 측정하는 부분



학생의 성장을 측정하는 양식은 각종 심리 검사 결과 표현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었습니다. 단원별로 학생의 학습 정도 혹은 흥미 등을 표현하게 할 수도 있고,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이해도 등을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0~5점까지 점수를 기록해 보고 나타나는 도형의 크기를 통해 자신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교과서 단원 마무리 혹은 단원 평가 부분에 수록되어 학생들에게도 익숙한 내용이라 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자신의 이해 정도 혹은 흥미도를 점수로 표시하게 한 것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과 사진, 성장 정도를 확인한 후에 흥미로웠던 활동을 떠올려 보도록 하였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서술해 보도록 했습니다.

### ◎ 학부모의 답장 부분

학생 성장 기록지를 통해 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학생 지도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의도를 담아 학부모의 소감을 받아 보았습니다.

## 피드백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기

피드백은 문제 풀이 혹은 수행 과정에서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포트폴리오에 교사가 코멘트를 달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한곳에 모아 정리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한다면 학생 성장 기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 성장 기록지를 처음 공개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교사의 업무 부담에 대해 걱정해 주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 학생 성장 기록지의 양식을 고민해야 하고, 피드백 내용을 기록해야 하는 업무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때 떠올랐던 방법은 ‘메일 머지(Mail Merge)’였습니다. 메일 머지란 여러 사람의 이름, 주소 등이 들어 있는 데이터 파일과 서식 파일을 결합하여 이름, 주소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이 같은 여러 통의 메일을 한꺼번에 만드는 기능입니다. 개별 피드백 내용을 기록한 엑셀 파일을 이용하여 학생 성장 기록지를 작성하여 나름대로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과별로 학생 성장 기록지를 작성하다 보면 학생 한 명당 받는 성장 기록지 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교과뿐만 아니라 주제 선택 활동을 포함한 자유학기 활동에 대한 성장 기록지까지 포함한다면 한 명당 열 장 이상을 받게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과별로 작성



한 학생의 성장 과정과 피드백 내용을 함께 모아 분기별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한 곳으로 모은 것이 현재의 나이스(NEIS) 학교 생활 통지표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과 역량, 자유학기(년)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생활 통지표는 글밥이 너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학생의 성취 수준이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어 학생의 수준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정보화 기기를 활용한 피드백 방법이 활성화되어 학생의 수행 과제가 포트폴리오화되기도 했습니다.

### 학생 성장 기록지, 하나의 수업이 되다

학생에게 “너는 00점이야.”라고 점수 결과만 알려 주기보다는 수행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나 보완 또는 수정해야 할 부분을 알려 주고 싶었습니다. 일회적인 지도보다는 체계적으로 학생의 성장 과정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지도하고 싶었습니다. 자유학기(년) 동안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잠재되어 있는 역량을 이끌어 내고 싶었습니다.

학생 성장 기록지를 작성할 때만 하더라도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학생 성장 기록지 양식을 구상하다 보니 교과 수업의 진행 과정을 학생, 학부모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더불어 개별적으로 진행된 피드백 내용을 정리해 보니 학습 과정 시 유의 사항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었고, 학생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단원별 혹은 문제 풀이 과정에 대한 이해도 점검을 통해서는 학생의 현재 상태뿐 아니라 수업 시간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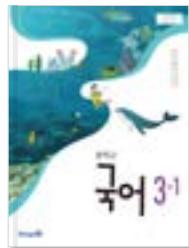
\*황유진 선생님의 연구 활동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왓쌤TV

[youtube.com/@whatssamTV](https://youtube.com/@whatssamTV)





# 미래엔 중학교 국어 교과서 활용기 교과서와 엠파이처의 시너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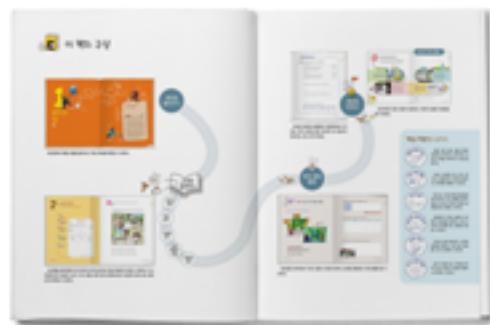
김 미 영  
안산부곡중학교 국어 교사

## 1 수업 진행에 도움이 되는 구성과 편집

교과서는 크게 대단원 들어가기, 소단원 공부하기, 창의 융합 활동, 대단원 마무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소단원 공부하기 안에 ‘생각과 발견, 작품 읽기, 이해와 탐구, 문제 해결과 적용, 정리와 점검’이라는 세부 구성이 있는데, 이 구성이 학생들의 단계별 국어 학습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소단원 공부하기 안의 세부 구성인 ‘작품 읽기’를 통해 학습해야 할 작품을 접하고, ‘이해와 탐구’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대단원 학습 목표와 함께 점검하며, ‘문제 해결과 적용’을 통해 관련된 다른 작품을 읽고 더욱 확장된 학습을 해 나가며, 마지막으로 ‘정리와 점검’을 통해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빈칸 채우기, OX 퀴즈, 어휘력 테스트, 사다리타기 놀이 등으로 정리해 나가는 활동이 교수 학습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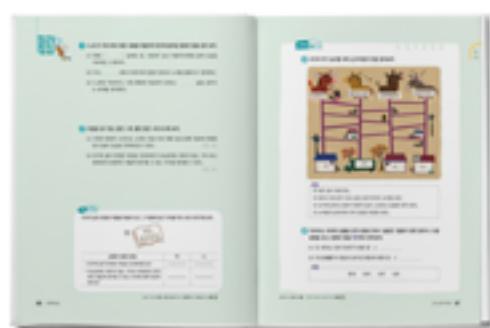
또 다양한 사진과 그림, 은은하며 조화로운 색감을 이용한 교재 편집은 국어를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도 심리적 부담 없이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가 되었다. 사진은 무척 실제적인 데다 내용 이해에 꼭 필요한 자료들이고, 그림은 중학생의 수준에 맞도록 내용이 확연히 드러나는 짜임새로 교과서를 학생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흥미롭게 받아들이게 했다. 시작적인 부분은 일반적인 도서와 마찬가지로 교과서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데, 미래엔 교과서는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에게 국어 수업을 지도할 때 호감을 주는 편집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



이 책의 구성



작품 읽기, 이해와 탐구



정리와 점검

## 2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



창의·융합 활동

창의·융합 활동으로 브이로그 제작하기와 독서 토론하기, 나만의 쓰기 노트 작성하기, 라디오 광고 만들기 등 교과서의 내용을 다양한 에듀테크 기법을 활용하여 수업할 수 있도록 그 소스가 제공되어 있으며, 수행 평가 문항을 제작할 때에도 별도로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활동 중심 문항들이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교실 밖 국어 체험

예를 들어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를 교수 학습하는 부분에서는 글의 구조를 알아보고 논증의 타당성을 판단해 본다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아파트 안내문과 흡사한 글과 그림을 제공함으로써 국어과의 수업을 교실 내에서만 국한시키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 녹아들어 가게 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이러한 점이 수업을 진행할 때 따로 많은 부교재를 준비하지 않아도 수업 구성이 알차게 이루어지는 요인이 되었다.

## 3 알찬 수업 준비, 엠티처



엠티처 교과서자료

엠티처는 국어 수업 운영에 70퍼센트의 기여를 했다. 그만큼 미래엔의 엠티처 사이트는 활용도가 매우 높은 인터페이스 소스였다. 엠티처에는 대표적인 메뉴로 ‘교과서자료’가 있다. 이 메뉴의 ‘수업자료’로 이동하면 수업 지도안뿐 아니라 수업 PPT, 교과서 PDF, 제재 정리, 핵심 정리, 활동지, 참고 자료, 어휘 평가, 쪽지 시험, 대단원 평가, 소단원 평가, 서술형 평가, 수행 평가와 같은 다양한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다. 이 중 제재 정리와 핵심 정리는 수업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 빠짐없이 제시되어 있어서 따로 학습지를 만들 필요가 없으며, 바로 유인물(학습지)로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할 만큼 유용했다. 또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기 전, 수업 PPT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배우게 될 내용을 미리 맛보게 했는데, 학생들이 내용을 배우

기 전 수업 내용을 개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PPT는 글씨체와 배경 화면 등이 은은하면서도 흥미를 끄는 구성으로 시각적인 효과까지 잘 고려되어 있었다.

또한 매 단원이 끝나면 소단원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문제를 풀며 수행 정도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데, 엠티처의 ‘평가자료’는 교사 입장에서 별도 문항지를 제작하지 않아도 충분할 만큼 배운 내용의 이해도를 충실히 점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수업지도안’은 참고 정도로 활용했는데, 수업을 시뮬레이션할 때 ‘수업지도안’과 비교하며 수업 운영을 고민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엠티처의 ‘스마트 수업’ 또한 즐겨 이용하는 메뉴이다. ‘스마트 수업’에서는 PPT를 정적인 자료 제공에 그치지 않고 동영상을 담거나, 하이퍼링크와 연결하여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곧장 어휘 풀이로 이동하도록 하고, 문제와 정답을 교사의 클릭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수업을 역동적으로 이끌었다. 덕분에 교과서라는 평면적 자료를 좀 더 입체적으로 수업에 구현해 내며 수업할 수 있었다.

또한 ‘스마트 수업’의 ‘E-book 수업’ 메뉴에서는 교과서를 스캔하여 교실 내 모니터 화면에 띄우면, “몇 페이지 봐야지! 어디에 무엇이 있잖아!”라며 별도의 지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점이 있었다. 교과서만 내려다보며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던 학생들도 모니터에 띄워진 교과서 E-book을 보며 호기심을 드러내며 집중할 수 있어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 향상에 백 번의 말보다 더욱 효과가 있었다.

엠티처의 ‘수업혁신자료’는 방학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지필 평가 후의 시간을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거꾸로 교실, 비주얼 쟁킹, 하브루타,



엠티처 수업 PPT 자료

수업계획(22) 평가계획(22) 학습내용(22)		
제작	평생학습	교과활동
○ 1학기 첫째주(1~2주) 교과활동	○	○
○ 1학기 첫째주(1~2주) 평생학습, 평생	○	○
○ 1학기 첫째주(1~2주) 노래와 퍼포	○	○
○ 1학기 첫째주(1~2주) 노래와 퍼포, 평생	○	○
○ 2학기 첫째주(1~2주) 교과활동	○	○
○ 2학기 첫째주(1~2주) 평생학습, 평생	○	○
○ 2학기 첫째주(1~2주) 노래와 퍼포	○	○
○ 2학기 첫째주(1~2주) 노래와 퍼포, 평생	○	○

엠티처 평가 자료



엠티처 수업 혁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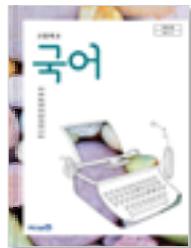
교수평가 일체화 등의 자료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접할 수 있었고 이를 활동 중심 수업을 운영하는 데 적용하며 허투루 보낼 수 있는 지필 평가 후 수업 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활동한 내용을 사진으로도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수업 기법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활동한 것과 비교하며 수업 설계를 고민해 볼 수 있었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로 참고가 되었다. 학생들도 다른 친구들의 활동 자료를 보면서 자극을 받아서인지 더욱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행 평가 및 지필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현재는 교과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역시 엠티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학습지 제작, 수업에 활용하는 PPT 제작, 수행 평가의 문항 제작 등에서 교과서와 엠티처의 체계적인 구성을 참고로 수업과 평가를 하고 있다. 2년간 미래엔 교과서와 엠티처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평면적이고 정적인 수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교사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수업을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이고 있는 미래엔 교과서 개발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 글을 마친다. **N**

---

\* 오른쪽 링크에서 미래엔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미래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활용기 시대를 따라가는 국어 수업

김현우  
홍덕고등학교 국어 교사

2학기가 무르익어 가는 11월, 선생님들이 며칠간 머리를 맞대고 모이는 날이 있다. 바로 교과서를 선정하는 날이다. 여러 교과서를 펼쳐 놓고 내용, 분량, 단원 구성, 학습 활동, 그리고 아이들을 사로잡을 꽤나 중요한 흥미 요소인 일러스트까지 고려하여 고심한다. 그렇게 마침내 골라든 교과서가 미래엔의 국어 교과서였다. 그것이 벌써 3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미래엔 국어 교과서(및 교과서 인터넷 사이트 엠티처)를 활용하여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 1 교과서 수업 자료의 보고, 엠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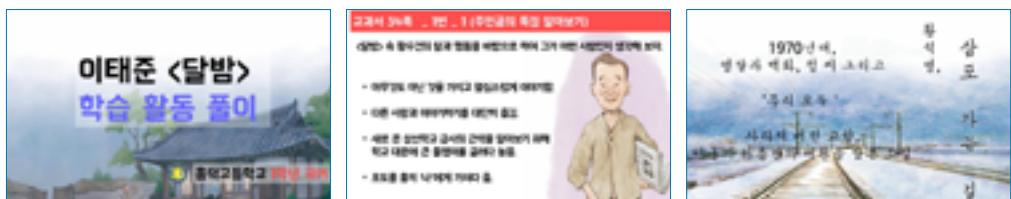
유튜브를 포함한 시청각 매체가 점점 발달하고 있는 요즘이다. 내가 성장할 때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없었지만,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해 온 요즘 아이들에게 시청각 매체는 마치 산소와 같이 모든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다. 더구나 크리에이터들이 제공하고 있는 양질의 콘텐츠에 익숙한 아이들을 가르치며, 교사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사용하여 수업을 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나는 미래엔의 교수 활동 지원 플랫폼 ‘엠티처(M-teacher)’에서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를 수집하고 재구성 및 제작하여 수업에 활용했다.

엠티처에서는 아이들이 수업에 흥미를 갖게 하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 수업이 한창 진행되던 당시, 나만의 수업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편집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한 적이 있었는데 ‘크리에이터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자되었다. 가용된 시간 속에서 영상의 기술적 품질과 재미 등 외적인 부분만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니 오히려 수업 내용적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진했다. 어느 순간 내 수업 자료는 ‘영상미와 재미는 있어 흥미롭지만 내용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자



엠티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는 미래엔 엠티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수업 전-중-후로 활용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수업에 흥미를 갖게 하는 데 충분했다. 멀티미디어에 대한 부담은 줄이며, 그 시간 동안 내용적인 부분을 더 충실히 연구할 수 있으니 엠티처의 다양한 자료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때로는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PPT를 새로 만들어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일러스트가 그대로 PPT에 깔끔하게 구현되니 수업에 더욱 잘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지에 첨부한 그림들은 내가 미래엔에서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 제작한 PPT의 사례이다.



엠티처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만든 PPT 자료

## 2 독서 수업 및 융합 수업에 활용

독서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각종 매체에 사로잡힌 요즘 아이들은 점점 독서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이들에게 책의 재미와 효능을 알게 하고, 책에 친숙해지도록 하며, 더 나아가서는 문해력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것이 국어 교사의 사명이다. 때문에 국어 교사는 늘 아이들의 독서 수업을 개인적으로, 또는 다양한 연구회나 교사 모임을 가지며 고민하게 된다. 미래엔 고등 국어 교과서의 경우, 2단원이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단원이다. 이 단원의 소단원(1)은 과정 중심 읽기 방법과 직접 교수법에 따라, 읽기 전-중-후 활동을 교사의 시범 후에 학생이 직접 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단원(2)는 교육 대상이 고1인 만큼 독서를 진로와 연계하여 학생이 직접 한 권의 책을 선택하여 읽고, 이를 모둠과 공유해 봄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한 편의 진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전임학교인 공업계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미래엔 고등 국어 교과서로 수업을 했는데, 엠파이어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다른 교과와의 융합 수업을 구성할 수 있었다. 기계 교과와 융합한 수업 명은 ‘책을 읽고, 나만의 문구를 각인한 제품 제작하기’였다.



교과서 및 학습지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둠별 책 공유



레이저 각인기를 통한 제품 제작



완성된 제품(핸드폰 케이스)

이와 같이 ‘2. 책 속에 길이 있다’ 단원의 ‘(2)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독서’ 소단원과 연계하여 진로 관련 국어-기계 융합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 단원에서는 진로 독서 활동의 과정 별로 모둠별 학습 활동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 맞게 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수업하기에 편리했다.



미래엔 교과서 2단원, 진로 관련 활동 부분  
(진로를 고려하여 책을 고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진로 관련 활동을 작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 관련 좌우명을 적어서 공유할 수 있게 만든 학습지

### 3 시대를 따라가는 국어 수업

최근 국어 수업 대부분의 고민은 ‘요즘 아이들에게 친숙한 매체를 활용하여 문학을 어떻게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이다. 미래엔 고등 국어 교과서의 6단원은 고전문학(옛노래 세 편)부터 현대문학(삼포 가는 길)을 감상하며 한국 문학의 흐름을 탐구하는 단원이다. 잘 알려진 작품들이기도 하고,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들도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아이들이 각종 하이퍼링크나 게임 형식을 통해 더욱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도록 ZEP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 단원을 수업하였다.



메타버스 ZEP을 활용한  
교과서 수록 작품



교과서 속 작품을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수업



계유정난을 다룬 영화 '관상' 리뷰  
(출처: 유튜브 '넥스트무비')

본 수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아이들은 메타버스에 접속하여 작품 내용과 관련 이야기 등을 수수께끼 형식으로 찾아가고, 작품과 관련된 영상이나 영화 등을 직접 시청하며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는다. 중간에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아이들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퀴즈도 만들어서 수업에 더욱 흥미를 느끼도록 했다. 이 6단원의 경우, 한 단원 자체가 문학사와 당대의 대표 작품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록된 문학 작품을 기반으로 만든 메타버스는 방대한 작품을 쉽게 감상하도록 돋는다.

미래엔 고등 국어 교과서(및 앰티쳐)는 ‘교사 지향적’인 교과서가 아닐까 한다.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이나, 교사의 연구와 노력이 조금 뒷받침된다면 단원 구성 및 수록 내용 등이 의미 있고 흥미 있는 수업을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미래엔 국어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을 마주하게 된 나는, ‘요즘’ 아이들의 국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N**

\* 오른쪽 링크에서 미래엔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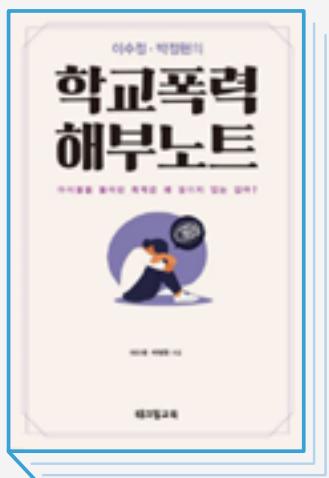
# 이 책을 소개합니다



## 『온·오프를 아우르는 학급경영 B to Z』

송형호, 손지선, 우리학교, 2021

두 교사가 마음과 뜻을 모아 수십 년 학급경영 노하우를 집대성했습니다. ‘돌봄과 치유의 교실, 참여와 소통의 학급’이라는 교육 철학이 바탕이 되고, 창의적인 온라인 학급경영 아이디어가 덧붙여졌습니다. 풍부한 실제 사례를 토대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완성된 실전 기술은 교실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블렌디드 학급경영의 모든 것을 담은 이 책은 행복한 담임을 꿈꾸는 모든 교사들에게 더 없이 좋은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 『학교폭력 해부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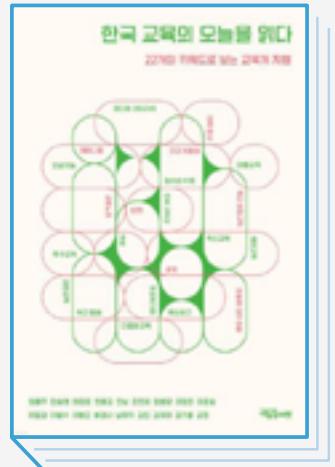
이수정, 박정현, 테크빌교육, 2021

범죄심리학자 이수정이 냉철한 시선으로 학교폭력의 현주소를 정확히 분석하고, 학교폭력 전문교사 박정현이 학교 폭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따뜻한 시선으로 안내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모든 실태와 솔루션, 예방법을 집약하였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불안한 부모의 마음’과 ‘어떤 학생도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길 바라는 선생님의 노력’이 담긴 책입니다.

## 『한국 교육의 오늘을 읽다』

정용주, 한승현, 하정호, 천용길, 진냥 외 12명, 교육공동체벗,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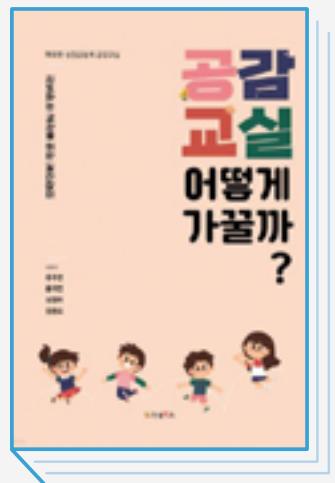
공정, 안전, 혁신 교육, 인공지능 등 오늘날 교육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슈들을 키워드로 구성한 책입니다. 교육계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온 문제들이 왜, 어느 시점부터 답보 상태에 있는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와 같이 오래된 의제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들의 논의 방향을 제안합니다.



## 『공감교실 어떻게 가꿀까?』

주주연, 흥석연, 성영미, 김창오, 가나북스, 2022

‘공감교실’은 학생 간 서로 공감과 인정으로 이어진 따뜻한 관계, 서로의 배움과 성장을 북돋는 협력의 관계로 연결된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책은 학급을 따뜻한 성장의 공동체, 공감교실로 가꾸려는 교사를 위한 책입니다. 초등과 중등 영역, 그리고 특수학급 영역까지 각 영역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감교실을 만들기 위한 길라잡이가 되어 줍니다.



## 내일을 여는 제9회 미래교육상 수상작 소개

더 빠르고 복잡한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미래 교육’은 무엇일까요? 미래엔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역량을 기르기 위한 ‘미래 교육’을 선생님들과 함께 연구합니다. 미래엔의 교육재단 ‘목정미래재단’에서 매년 미래 교육을 주도하는 현직 교사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미래교육상’ 공모전의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제9회 미래교육상은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6팀으로 총 12팀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은 지난 3월 세종시 미래엔교과서박물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 대면으로 열린 이번 시상식에 수상자와 가족, 동료가 함께 참석하여 시상식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 '산(S.A.N.)을 거닐며' 프로그램을 적용한 숲세권 프로젝트를 통해 인성 교실 만들기

이현준(서울상신초등학교)



이 프로그램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인성 교육의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 속으로 교실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유치원의 끝과 초등학교의 시작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한 저학년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인성 교육의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설계했습니다. '산(S.A.N.)을 거닐며'는 학교를 품고 있는 산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인성 덕목 신장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로 인성 덕목 느껴 보기', '활동 중심 수업으로 인성 덕목 체득하기', '자연 교실 운영으로 인성 덕목 내재화 및 공유하기'로 구성했습니다. 신체를 직접 활용하고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 중심 수업은 학생들이 학습의 주도권을 갖고 인성 덕목을 체득하는 기회가 됩니다. 교실의 영역을 확장하여 자연 숲 교실을 이용한 수업을 통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환경 민감성을 지닌 생태 시민으로 성장하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습니다.

● **선생님 한 마디:** 저희 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 숲 해설사님과 산을 한 바퀴 도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로 돌아오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적이더라고요. 아이들의 활동 영역을 조금 확장해 보자 싶었습니다.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면 더 꾸준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산을 많이 가다 보니 아이들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활동할 때는 친구들이 서로의 감정을 잘 이해를 못하고 갈등이 생기면 해결하는 걸 어려워했는데 야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서로 감정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학교에 가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계속 수업에 활용하는 연구를 해 나가려 합니다.



## 사계절 프로그램으로 생태·에듀테크 역량 기르기

미래교육연구 부문: 허수정(서울녹천초등학교),  
김지현(서울안천초등학교), 김하영(서울공진초등학교)



사계절 프로그램은 단발적이고 추상적인 환경 교육을 벗어나 학생들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존 환경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획했습니다. 1년에 걸친 지속적 생태 교육, 학생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태 교육, 세대 특성을 고려한 에듀테크 활용 생태 교육을 담고 있습니다.

**봄(지구 프로젝트)**에는 클래스툴(ClassTool), 띵커벨(ThinkerBell)을 활용하여 숲과 바다를 중심으로 생태 문제를 살펴보고, 미래의 모습을 고민하는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환경보호 소재 애니메이션 영화 ‘로렉스’를 보고 숲이 사라진 지구 상상하기, 바다식목일의 탄생 배경을 알고 정크아트(Junk Art)로 표현하기, 미래 바다의 모습 포스터 그리기 등을 진행합니다.

**여름(미래 프로젝트)**에는 노션(Notion), 구글 슬라이드(Google Slides)를 활용하여 미세 플라스틱에서 발생하는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습합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의 영향 알아보기, 생활 속 미세 플라스틱 노출 원인 찾아보기, 플라스틱 대체품 탐색하기, 보드게임을 통해 프로젝트 학습 내용 내재화하기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가을(푸로미스 프로젝트)**에는 퓨처미(Futureme), 줌(ZOOM) 등을 활용하여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해’ 문제 해결에 진취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함양합니다. 환경 도서『미세 먼지 수사대』온책 읽기를 바탕으로 미세 먼지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융합하여 표현하는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미세 먼지 온라인 수사 활동, 미래의 나에게 메일 보내기, 미세 먼지 UCC 만들기 및 줌 발표회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겨울(제로 프로젝트)**에는 제페토(ZEPETO), 패들렛(Padlet) 등을 활용하여 앞선 세 계절의 생태 프로젝트에서 학습한 내용을 학생들이 능동적 행위 주체자로서 생활화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를 줄이는 ‘제로 프로젝트’ 활동으로 병뚜껑 수거 챌린지, 환경 칼럼 뉴스 제작, 샴푸바 만들기, 환경 친화 제품 알뜰장터 등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은 기후·생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태 역량’을 기르고 미래 시민으로서 디지털 활용 능력을 재고 할 수 있습니다.

최우수상

## 일상의 소소한 행복 찾기 「소담소담」활동

인성교육혁신 부문: 오선영(미래고등학교), 강승한(원주샘마루초등학교)



소소한 일상을 그림에 담아 마음에 소중히 담는다는 뜻의 '소담소담' 활동은 '무엇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까, 무엇이 우리를 재미있게 하며 지속적인 일상의 행복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주제와 방향을 정했습니다. 수업 진도와 시험 걱정 없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 동아리 시간을 활용합니다. 수업 진행 방식은 '가치에 대해 생각하기', '나와 그림에 몰입하기',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는 매듭짓기'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동아리의 최종 목표는 전시회 열기, 판매 수익금 기부하기, 수채 엽서를 활용한 아이디어 상품 개발 등으로 세웠습니다. 학생들은 '생각하기 - 몰입하기 - 매듭짓기'를 통해 작품을 완성합니다.

여러 번의 작은 성공 경험 축적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본 수업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일상의 소소함을 소재로 제작한 수채 엽서를 활용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 작품 전시회를하고 그 수익금을 기부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목표와 의미를 이끌어 내는 능력,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 주는 요소를 도출해 내는 능력인 하이터치 능력과 하이콘셉트 능력을 실천하는 것이 동아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우수상

## 인공지능 기반 음악 창작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미래교육연구 부문: 최주민(봉성초등학교)



통합학급 속 학생들 역시 미래 사회를 살아가야 할 주체이며 디지털 역량을 길러 줘야 할 대상이므로 인공지능 기반의 음악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과제1 '음악으로 닫힌 마음의 문을 열다(Unlock)', 과제2 '음악의 세계로 향해를 떠나다(Navigate)', 과제3 '음악으로 내 마음을 나타내다(Indicate)'로 구성했습니다. 과제1에서는 AI 작곡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활용성을 깨닫고 음악 창작 활동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제2에서는 AI 작곡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제적 음악 창작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음악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과제3에서는 음악 창작 활동 기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 사회 적응을 위한 힘을 기르도록 했습니다.

● **선생님 한 마디:** 쉬는 시간이나 남는 시간에 짬을 내서 아이들과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과 만든 음악은 음원으로 발매해서 음원사이트에도 올라갔어요. 올해도 아이들과 음원을 또 발매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다섯 곡 정도 모아서 앨범을 내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우수상

## 열 살 어린이들의 '기부 프로젝트'를 통해 발견한 나눔의 행복 인성교육혁신 부문: 김수은(토월초등학교)



이 프로젝트에서는 돈이 없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공모전 상금으로 기부금 모으기, 필요한 물품 만들어 기부하기, 장애 인식 개선 재능 기부 캠페인 열기, 가족과 함께 점자 동화책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나눔의 가치를 깨닫고 존중, 배려 등의 다양한 인성 가치·덕목을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성과를 연말 크리스마스에 시각 장애인 교육 기관인 '한빛맹아원'에 기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부를 통해 학생들은 공감, 공평, 배려, 의사소통, 협력, 공감, 소통, 공익, 나눔, 공동체 의식, 공공선

등의 인성 덕목을 키워 도덕적 대인 관계 능력, 도덕적 정서 능력, 도덕적 공동체 의식과 포용력을 갖춘 미래 사회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수상

## 학부모 상담용 챗봇 서비스 미래형 교수서비스 및 교육사업 연구 부문: 손지상(서탄초등학교)



'학부모 상담용 챗봇 서비스'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근무 시간 외 학부모 상담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학교 교육 공동체가 소통하며 공존하는 방법으로 제안하는 서비스입니다. 챗봇은 텍스트나 음성으로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업무 시간 외에 학부모의 연락은, 시급하고 중요한 내용이기보다는 다음날 처리해도 되거나 간단한 검색으로 해결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챗봇을 이용하여 학부모에게 즉각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고 교사 또한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챗봇은 카카오톡, 네이버 클라우드, 라인, 페이스북 등 국내외 다양한 채널에서 구동 가능하며 학교 홈페이지를 기반 플랫폼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는 챗봇 서비스에 입장하면 원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챗봇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의는 상담 시간 예약이나 즉시 연락 등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 기술은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유용한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교육 공동체가 서로를 존중·소통하며 공존하는 방법인 챗봇 서비스 활용이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장려상

## L-I-N-K프로젝트를 통한 생태 의식과 문제 해결력 기르기

미래교육연구 부문: 주세진, 유승민(샘물중고등학교)



기후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 능력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의 환경 생태 교육 강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LINK)'을 핵심으로 하여 '삶(Life), 상호작용(Interaction), 자연(Nature)에 관한 지식(Knowledge)을 다루는 과학 기술 창안 대회'를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중학생들의 생태 의식과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했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 중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원인과 실태를 조사하는 ① 문제 인식,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 기술 조사, ② 대안 탐색, 과학 지식을 토대로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③ 문제 해결, ④ 모형 제작(프로토 타입), ⑤ 전시 및 발표 단계로 진행했습니다.

● 선생님 한 마디: 아이들이 자연과 생태에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가게 되었고, 본인이 직접 만든 것을 전시하고 발표하면서 다방면으로 성장했어요. 무엇보다 자기만의 경험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예술 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선생님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수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장려상

## 노션과 피그마를 활용한 한·태국 그림책 만들기

미래교육연구 부문: 이대형, 이하얀(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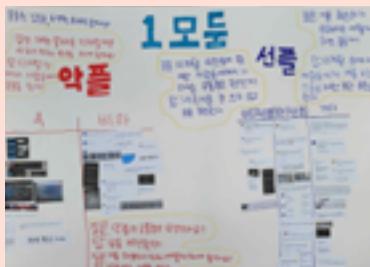
본 연구는 교류 학교의 태국 학생들과 어떻게 하면 의미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질문'으로 서로를 연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태국과 한국 학생이 질문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이어가고, 이 과정을 '노션'으로 기록하고, '피그마'로 편집 디자인을 하여 그림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세계 시민 교육 프로젝트는 태국과 한국 학생이 협업하고, 국어와 디자인 교과를 융합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생의 탐구 과정이 구체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만남·나·너·우리·안녕'이라는 학생의 실제적 삶을 수업 주제로 구현했습니다. '질문하기 - 탐구하기 - 쓰기'의 3단계 순환 모형으로 구조화하여 나와 너, 우리를 알아 갑니다. 이와 같이 학생의 삶을 수업 주제로 하여 융합형 교육과정을 실현시킨 글로벌 공동 프로젝트는 미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역량을 길러 줄 것입니다.

● 선생님 한 마디: 세계 시민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태국 학생들도 저희를, 우리 학생들도 태국을 이해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협업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교류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디지털 세상, 올바르게 만들기 - 디지털 사회에서 올바른 시민성을 함양해요

인성교육혁신 부문: 노들(서울북성초등학교)



이 프로그램의 주제는 '디지털 세상, 올바르게 만들기'로, 학습자들이 디지털 시민성 역량을 함양할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22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운영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탐색, 발견, 탐구, 해결, 참여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탐색 단계는 디지털 시민성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디지털 시민성의 개념 작성, 스스로 디지털 시민인지 평가하기, 친구들과 디지털 시민성의 개념 토의하기로 구성됩니다. 두 번째 발견 단계에서는 디지털 시민성이 높은 사례와 부족한 사례를 찾고 온라인 공간의 문제와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올바른 디지털 시민을 알아갑니다. 세 번째 탐구 단계에서는 디지털 시민성을 범주화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디지털 시민성을 알아봅니다. 네 번째 해결 단계에서는 디지털 시민성을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디지털 시민성의 특징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참여 단계에서는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공익광고 영상을 제작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통해 디지털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해 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을 함양하고, 실효성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하여 인성 교육 차원에서의 다양한 교과와 연계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 희희낙락 3GO 예술 활동을 통한 마음 균육 키우기

인성교육혁신 부문: 전혜연(대전자운중학교)



본 프로그램 연구는 마음 챙김 워크북을 제작해서 학생들의 마음 균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신장시켜 학생들이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개 반의 33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2월까지 11개월에 걸쳐 자유학년제 시간에 운영했습니다. 첫 번째 실천 과제 '마음을 살피GO'에서는 마음에 집중하여 시로 표현하고 산책을 하고, 나의 행복한 루틴 만들기, 삶의 도전 리스트 만들기 등 잠재력을 키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 실천 과제 '마음을 키우GO'에서는 1인 1악기 연주, 공연 예술 감상, 감정 표현을 통한 감성 수업 등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표현합니다. 세 번째 실천 과제 '마음을 세우GO'는 행복한 순간 기억하기, 부모님과 함께하기, 가족 예술 동아리 활동하기 등을 통해 행복한 마음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 같은 실천 과제를 함으로써 마음 챙김을 통한 자기조절 능력 강화, 마음 표현을 통한 긍정적인 정서 향상, 행복감을 통한 대인 관계 능력 신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행복한 순간의 기억으로 행복감을 찾고, 학부모·교사와 함께하는 예술 활동을 통해 공동체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예술 활동을 통한 긍정적 정서는 행복감을 형성하고 행복한 정서를 통해 학생들의 회복 탄력성을 길러 주었습니다.

장려상

## 함께하는 미래 Co - Co 프로그램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부터 입시 면접 대비까지 심리스하게 돋는 슈퍼앱

미래형 교수서비스 및 교육사업 연구 부문: 이동규(완도고등학교)



내실 있는 교육 경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개별화 자료와 사용자 경험 혁신을 통해 클릭만 하면 누적된 상담 자료 제공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진로 설계, 입시 지도의 동반자로 AI에 기반한 내용 요약과 생활기록부 작성 추천 키워드를 제공하여 담임과 교과 교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면접 기초 자료를 생성하여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라는 면접 지도에서도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장려상

## 통일 버스 타고 메타버스와 만나 평화 통일 실천 의지를 키워요

미래형 교수서비스 및 교육사업 연구 부문: 심정섭(삼포초등학교)



메타버스가 교육의 학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통일에 있어서 실제로 유의미한 학습 자료는 부족하고 교육의 효과가 지속되지 않은 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 프로그램은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학생 주도의 유의미한 학습 활동을 제공하면서 온라인 전시회 만들기를 통해 교육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DMZ 메타버스 공간을 탐방하며 DMZ가 무엇인지, 남북 분단의 역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인통일교육센터 메타버스 공간을 탐방하며 통일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백두산은 어떤 곳인지 둘러봅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의 통일 교육 영상을 시청 후 6.25 전쟁은 왜 일어났는지, 전쟁 후 겪게 된 어려움 등을 알아보고,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안 등을 생각해 봅니다. 메타버스 공간을 탐방하며 알게 된 내용은 통일 버스 수첩에 정리합니다. 마지막 활동으로 통일부 도서·동영상 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이 통일 신문으로 만들고 싶은 뉴스를 찾아 온라인에서 제작합니다. 통일 신문을 메타버스 공간에 전시하고 친구들의 기사를 살펴봅니다.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하면 매년 통일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직접 만든 결과물을 전시하여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 IB (국제 바칼로레아) 도서 3종 국내 첫 출간



미래엔이 IB(국제 바칼로레아) 도서 3종을 출간했습니다.『지식 이론』,『세계 대전으로의 움직임』,『20세기 전쟁의 원인과 결과』는 국내 최초로 출간된 IB 도서로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의 IBO 공식 인증 도서를 번역한 것입니다.

IBO 공식 인증이란 엄격한 품질 보증 프로세스에 따라 도서의 콘텐츠가 현행 IB 커리큘럼과 일치하고, IB 교수 및 학습을 위한 고품질 지침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IBO의 검토를 거쳤다는 뜻입니다. IB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IB 월드스쿨에 적합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도서입니다.

본문 곳곳에 등장하는 박스에는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토론하기 및 참신한 질문거리가 실려 있어 학생들이 ‘생각을 꺼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현대적이고 다양한 예시와 발췌문을 실어 핵심 기능을 익힐 수 있으며, 일상 속 경험과 지식을 연계하는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과정 지식 이론

The theory of knowledge

## 개인과 사회 - 역사 교과 세계 대전으로의 움직임

The move to global war

## 개인과 사회 - 역사 교과 20세기 전쟁의 원인과 결과

Cause and effects of 20th-century wars



## IB란?

\* IB는 1968년 스위스에 설립된 재단법인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국제 바칼로레아기구)가 운영하는 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정 국가만이 아닌 어느 국가에서도 통용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대입 시험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IB는 2023년 3월 기준 세계 159개국 5,600개 이상의 학교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 IB 교육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 및 탐구 학습 활동을 통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이 지식 습득에만 그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데 중점을 둡니다. 토론 수업과 글쓰기 과제 등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고, 비교과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입니다. IB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생각의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평가는 학생의 생각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꺼내어 표현하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는 2017년 서울시교육청에서 IB 정책 연구를 시작하였고, 2019년 대구교육청, 제주교육청에서 도입, 현재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충남교육청, 경남교육청, 전남교육청 등 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 도입을 확정하며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IB 월드스쿨은 IBO로부터 IB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모든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여 인증받은 학교를 뜻합니다. 초·중학교는 ‘후보’ 단계까지만 인증되어도 IB 학교로 정식 운영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는 ‘월드스쿨’까지 인증을 받아야 IB 학교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IB 월드스쿨인 경북대사대부고, 대구외국어고, 포산고, 대구국제고, 제주표선고에서 미래엔에서 출간한 IB 도서를 사용 중입니다.

\* 미래엔 IB 도서는 아래 링크에서 미리 보기 가능합니다.

지식 이론



세계 대전으로의  
움직임



20세기 전쟁의  
원인과 결과



## 『혁신수업N』은 선생님의 생각을 聽합니다

요즘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관련 스타트업 기업이나 아니면 요즘 선생님들이 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에듀테크 관련 사이트, 활용 사이트 등에 대해 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챗(chat)GPT 사이트 소개라든가, 활용법 등이요. 이번 호를 보면서 메타버스에 대해 제가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교사로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할 것 같아서 어깨가 무겁지만, 아이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날이 온다면 무척 즐거울 것 같습니다.

\_이근주 선생님(전주양현초등학교)

학급경영 사례가 좋았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생활 지도는 어떻게 하실까? 더 좋은 새로운 방법, 재미있는 방법은 없을까? 교사로서 늘 궁금하고 고민이 됩니다. 다른 선생님 사례를 자세히 소개해 주고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팁도 안내하고 있어서 좋았어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소식 기대합니다. 항상 고마운 M-teacher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_권태경 선생님(서울금성초등학교)

전반적인 교육의 흐름이 메타버스 교육으로 흘러가는 과도기가 아닌가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코딩 교육의 붐이 일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 메타버스라니… 세상이 정말 급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VR 교육을 틈틈이 하며 저 또한 다방면으로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기삿거리와 익을거리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_최선호 선생님(인천부개서초등학교)

# 『혁신수업N』은 선생님의 마음과 通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혁신수업N』은 온라인 웹진으로 편리하게 읽어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엔 엠티처([www.m-teacher.co.kr](http://www.m-teacher.co.kr)) > 혁신수업N에서  
 <E-book 보기>와 <PDF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COVER  
PEOPLE을  
추천해  
주세요**

『혁신수업N』은 수업 혁신을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과 결과를 전하는  
 매거진인 만큼 표지에 선생님의 빛나는 얼굴을 담으려 합니다.  
 교사로서의 철학 및 노력이 남다른 선생님을 알고 계시다면  
 엠티처([www.m-teacher.co.kr](http://www.m-teacher.co.kr)) > 혁신수업N > 참여 광장에  
 커버 피플을 추천해 주세요.

**참여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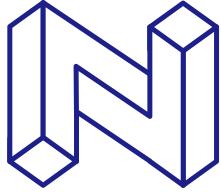
『혁신수업N』의 성장 동력은 선생님들의 관심과 진솔한 의견입니다.  
 이번 호를 보고 인상적이었던 내용이나 칭찬하고 싶은 점, 아쉬웠던 점,  
 취재를 바라는 이슈 등을 엠티처([www.m-teacher.co.kr](http://www.m-teacher.co.kr)) > 혁신수업N >  
 참여 광장에 남겨 주세요.

\* 참여 광장에 남겨 주신 후기와 제안, 추천이 매거진 제작에 반영될 경우  
 커피 상품권(1만 원) 등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오른쪽 QR코드를 통해 『혁신수업N』을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 혁신 수업



Vol. 18 | 2023 | 여름호 | 중고등

선생님을 위한 수업 혁신 전문지

## COPYRIGHT

발행일 2023년 6월 10일

발행인 신광수 | 퍼낸곳 (주)미래엔 | 등록번호 제 16-67호

편집 책임 황은주 | 편집 윤선미, 황선득, 최영아, 전다해

디자인 책임 손현지 | 디자인 김병석, (주)보명씨앤아이

제작 지원 강승훈, 봉대중

촬영 ZARL 스튜디오 | 그림 양승용, 문다미

\*본 도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주)미래엔이 본 도서에 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합니다.

본사의 동의 없이 본 도서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복사, 복제할 수 없습니다.

## Contact Mirae-N

www.m-teacher.co.kr

(우)06532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

1800-8890

비매품 이 책은 선생님의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무료  
증정본입니다.

# 미래엔 엠티처는 소통과 협력의 미래 교실을 꿈꾸며 선생님의 수업 연구를 지원합니다.

[www.m-teacher.co.kr](http://www.m-teacher.co.kr)



미래엔 엠티처  
바로가기



M—  
teacher

미래엔 교수 활동 지원 플랫폼  
[www.m-teacher.co.kr](http://www.m-teacher.co.kr)

## 스마트 수업

PC, 모바일 모든 환경에서 교과서 E-Book,  
스마트 PPT 수업 구현

## 교과서자료

실시간 업데이트로 최신의 수업·평가 자료 제공

## 수업혁신자료

비주얼씽킹 등 온·오프라인 모든 수업에  
적용되는 수업 혁신 사례

## 멀티미디어자료

개념클립영상, EBS영상 등 수업의 흥미를  
더하는 최적화된 영상 자료

선생님이  
교과서다



### **미래엔은 교과서로 세상에 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선생님은 각별합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교과서의  
가장 아름다운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 **미래엔에게 선생님은 교과서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우리는 미래에도

선생님, 당신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